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 책임연구자 : 임영식(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 공동연구원 : 손경원(서울대학교 강사)
신택수(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정경은(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연구보조원 : 홍유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1차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검사도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형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 구성요소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의 2요인 모델을 확정하여 예비조사를 위한 예비문항을 딜레마별로 상황지각 6문항, 결과지각 6문항, 총 3개의 딜레마 3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으로 2012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의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새롭게 문항을 추가하는 문항조정을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2년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200개 학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216명의 데이터가 본조사에서 분석되었다. 본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해 측정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와 신뢰도 분석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SPSS 19.0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Mplus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도덕적 감수성의 검사도구는 딜레마별로 상황지각 5문항(도덕적 이슈 지각 1문항, 도덕적 갈등 이유 2문항, 상황에 대한 감정 2문항), 결과지각 4문항(행위결과지각 1문항,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지각 1문항, 예견한 결과에 대한 타인의 감정 공감 1문항), 9문항씩 총 3개의 딜레마 27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도덕적 감수성 측정도구, 상황지각, 결과지각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에 개발된 감수성 검사도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형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최종 확정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연구 동향 파악
-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하위영역 및 딜레마 설정
-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
-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의 활용방안 제시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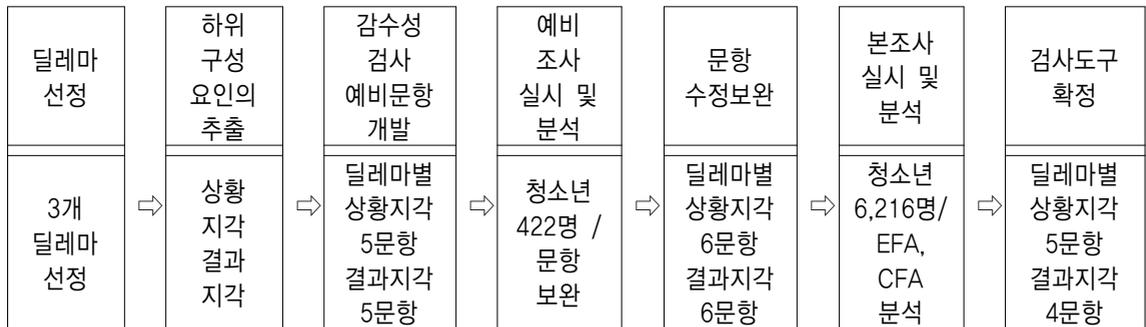
-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하위영역 구성 및 하위영역별 개념정립, 이론적 배경 검토 및 기존 검사도구의 장단점, 적용실태 및 한계 분석
-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동향 분석 등을 위한 문헌 연구 실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본 연구 담당자와 협동연구과제 수행 연구진(도덕적 감수성팀, 도덕적 동기화팀, 도덕적 품성화팀)의 협동연구협의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을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실시

3. 검사도구 개발과정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방향 및 특징

- 도덕성 종합검사를 위한 공통 딜레마 사용
- 도덕적 감수성의 규범적 정의 채택
- 인지-정서의 상호작용을 전제
-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인을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으로 구성

2) 개발과정



4. 주요연구결과

-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문항: 3개의 딜레마 별 상황지각 5문항, 결과지각 5문항, 총 30개 문항)를 분석한 결과, 1차년도와 같이 3개의 딜레마가 통합적으로 요인분석 되지 않고, 딜레마별로 요인이 구분됨.
- 모든 딜레마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요인의 수는 2개로 나타남.
-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상황지각은 2문항, 결과지각은 4문항일 때, 가장 모델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딜레마별로 상황지각 6문항, 결과지각 6문항, 총 36문항을 구성함.

- 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2개의 요인이 재차 확인됨.
- 요인 적합도가 가장 좋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문항 삭제과정을 거침.
- 최종 모델을 선정하고 문항들의 내용타당도를 재차 검토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함.
- 도덕적 감수성의 상황 및 결과지각 요인으로 구성된 이론 모형이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에 근거하였을 때 자료를 매우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의 문항은 3개 딜레마 각각에 대해 상황지각 5문항, 결과지각 4문항씩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됨.
- 세부적으로 딜레마별로 상황지각에는 도덕적 이슈 지각 1문항, 도덕적 갈등 이유 2문항, 상황에 대한 감정 2문항이며, 결과지각에는 행위결과지각 2문항,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지각 1문항, 예견한 결과에 대한 타인의 감정 공감 1문항임.

구성 요인	하위구성요인	문항수	
상황 지각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3	15
	도덕적 갈등 이유 지각	6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6	
결과 지각	행위 결과 지각	6	12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지각	3	
	예견한 결과에 대한 타인의 감정 공감	3	

- 개발된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과의 상관은 .069 정도로 나왔으며,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인인 상황지각과 결과지각과의 상관은 .073과 .062이었음.

5. 정책적 제언

- 도덕적 감수성 및 판단력 관련 프로그램 개발
 도덕적 행동의 구체적인 발현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 및 판단력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측정결과 해석을 위한 기준표 작성과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의 유형과 해석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추후연구에서는 척도의 정교화 및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행동으로의 연결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연구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도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의 도덕수준을 파악하여 청소년 개인별, 집단별로 맞춤형, 수준형 프로그램 적용을 해야 할 것임.
- 학교나 청소년활동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의 개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함.
- 본 검사도구의 하위요소는 도덕 프로그램 핵심 요소로서 활용 가능하며, 프로그램 개발 지침 및 프로그램 담당자나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 구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1
1. 도덕적 감수성의 개념 및 하위요소 구성	13
2. 도덕적 감수성 선행연구 개관	22
3. 도덕적 판단력의 개념	26
4.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27
III. 검사도구 개발과정 및 조사방법	33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방향 및 특징	35
2. 예비조사 방법 및 절차	36
3. 예비조사 결과	47
4. 본조사 방법 및 절차	65
IV. 분석결과	73
1. 본조사 문항의 기술통계와 응답 빈도 분석	75
2. 본조사 신뢰도 분석	79
3. 본조사 요인 분석	81
4. 본조사 결과 타당도 점검	87
5.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최종문항	90

V. 결 론	95
1. 연구의 요약	97
2. 정책제언	98
참고문헌	113
부 록	125

표 목차

〈표 II-1〉 도덕적 감수성 하위요소	16
〈표 II-2〉 1차년도 도덕적 감수성 첫번째 딜레마와 문항	17
〈표 II-3〉 1차년도 도덕적 감수성 두번째 딜레마와 문항	18
〈표 II-4〉 1차년도 도덕적 감수성 세번째 딜레마와 문항	19
〈표 II-5〉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요소	20
〈표 II-6〉 도덕-단계 발달에 대한 Rest의 개념화	29
〈표 III-1〉 요인 및 검사 문항에 대한 1차년도 연구와 비교	38
〈표 III-2〉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	38
〈표 III-3〉 도덕적 감수성 문항 구성	39
〈표 III-4〉 도덕적 감수성 첫 번째 딜레마 문항 구성	40
〈표 III-5〉 도덕적 감수성 두 번째 딜레마 문항 구성	41
〈표 III-6〉 도덕적 감수성 세 번째 딜레마 문항 구성	42
〈표 III-7〉 연구분석 표본	44
〈표 III-8〉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45
〈표 III-9〉 기술통계	48
〈표 III-10〉 응답 반응 분포	49
〈표 III-11〉 예비조사 신뢰도	51
〈표 III-12〉 총 분산에 근거한 요인분석 결과	53
〈표 III-13〉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4
〈표 III-14〉 요인 구조행렬	55
〈표 III-15〉 확인적 분석 모형	56
〈표 III-16〉 분석 모형의 적합도	58
〈표 III-17〉 최종 모형 모수추정치	59
〈표 III-18〉 딜레마 1번 1차 문항과 수정문항	61
〈표 III-19〉 딜레마 2번 1차 문항과 수정문항	62
〈표 III-20〉 딜레마 3번 1차 문항과 수정문항	63

〈표 Ⅲ-21〉 지역별 예상표본 및 조사대상 학교 수	66
〈표 Ⅲ-22〉 도덕적 감수성 본조사 문항 구성	67
〈표 Ⅲ-23〉 도덕적 감수성 첫 번째 딜레마 수정문항	68
〈표 Ⅲ-24〉 도덕적 감수성 두 번째 딜레마 수정문항	69
〈표 Ⅲ-25〉 도덕적 감수성 세 번째 딜레마 수정문항	70
〈표 Ⅳ-1〉 각 문항 별 기술통계	76
〈표 Ⅳ-2〉 각 문항별 응답 반응 분포	78
〈표 Ⅳ-3〉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80
〈표 Ⅳ-4〉 총 분산에 근거한 요인분석 결과	82
〈표 Ⅳ-5〉 총 분산에 근거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83
〈표 Ⅳ-6〉 총 분산에 근거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5
〈표 Ⅳ-7〉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	86
〈표 Ⅳ-8〉 도덕적 감수성 딜레마별 신뢰도	87
〈표 Ⅳ-9〉 도덕적 판단력 기술통계	87
〈표 Ⅳ-10〉 도덕적 판단력과 감수성 요인 관계분석	89
〈표 Ⅳ-11〉 도덕적 감수성 첫 번째 딜레마 최종문항	91
〈표 Ⅳ-12〉 도덕적 감수성 두 번째 딜레마 최종문항	92
〈표 Ⅳ-13〉 도덕적 감수성 세 번째 딜레마 최종문항	93
〈표 Ⅴ-1〉 도덕적 감수성 관련 프로그램	99
〈표 Ⅴ-2〉 도덕적 판단력 관련 프로그램	103
〈표 Ⅴ-3〉 도덕적 감수성 관련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요소	105
〈표 Ⅴ-4〉 도덕적 기술 학습의 단계와 활동	106
〈표 Ⅴ-5〉 도덕적 감수성의 요인별 강점과 약점	108
〈표 Ⅴ-6〉 도덕적 판단력의 요인별 강점과 약점	109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6
【그림 III-1】 도덕적 감수성 확인적 분석 모형	46
【그림 III-2】 딜레마 통합적 2수준 요인구조 모형	56
【그림 III-3】 수정모형 요인 구조	58
【그림 IV-1】 도덕적 감수성 확인적 분석 모형	84
【그림 IV-2】 딜레마 통합적 3수준 요인구조 모형	8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찍이 서양의 소크라테스가 지행합일을 주창한 이래로, 도덕적 지식이나 사고(판단)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는 항상 수많은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지(知)만으로 행(行)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과정이나 변인을 제시한 레스트(Rest, 1983)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 연구나 교육에서 주목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콜버그 이론 및 방법론을 재해석하여 인지발달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계승하면서도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인격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행위로 반응하는 과정을 상세화하였다. 각각의 과정은 독특한 기능이 있는 과정으로 4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지각하고 판단하고 동기화하여 행위로 이어진다는 명쾌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레스트의 이론은 도덕성의 환원주의적 설명을 지양하고 통합적 구도로서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도덕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도덕적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삐아제(Piaget)와 콜버그(Kohlberg)를 비롯한 인지발달이론가들은 도덕적 사고와 판단에 대해 연구하였고, 안나 프로이드(Anna Freud) 등과 같은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도덕적 정서를 연구하였고,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도덕적 행동을 연구의 주제로 하여 왔다. 하지만 도덕적 인지, 정서, 행동이 각각 독립된 발달 경로를 갖거나 서로 상호작용 없이 작용한다는 가정은 도덕의 기능(functioning)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정서가 결여된 도덕적 인지가 없고 도덕적 인지가 결여된 도덕적 정서도 없으며, 이들의 상호작용 없이 도덕행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Rest, 1986, p.4).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은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모형에서 제1요소로서,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가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사람들은 비교적 간단한 도덕적 사태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민감성에 있어서도 현저한 개인차가 발견되는데, 바로 이런 차이들은 도덕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Rest, 1983, 559).

레스트가 4요소 모형을 제기한 이후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상당한 연구들이 의료, 과학, 회계, 경영, 인문사회 분야에서 전문직 윤리로서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들이 개발되었다. 비보우(Bebeau, 1982)는 레스트와 함께 치과의사의 윤리 감수성 검사(Dental Ethical Sensitivity Test)를 개발하고, 볼커(Volker, 1984)는 상담전문가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도 홍성훈(2000)은 의료윤리에서 도덕적 감수성을 검사하는 도구를, 문미희(2004)는 인권감수성검사, 김향인(2004)은 정보윤리 감수성 검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나 특정 윤리 영역의 관점에서 감수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 척도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홍성훈·최창욱·박균열(2011)은 지난해 청소년용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도덕적 갈등 및 문제 사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감수성 딜레마를 선정하고 예비 검사를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84로 높았지만 검사도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딜레마 문항이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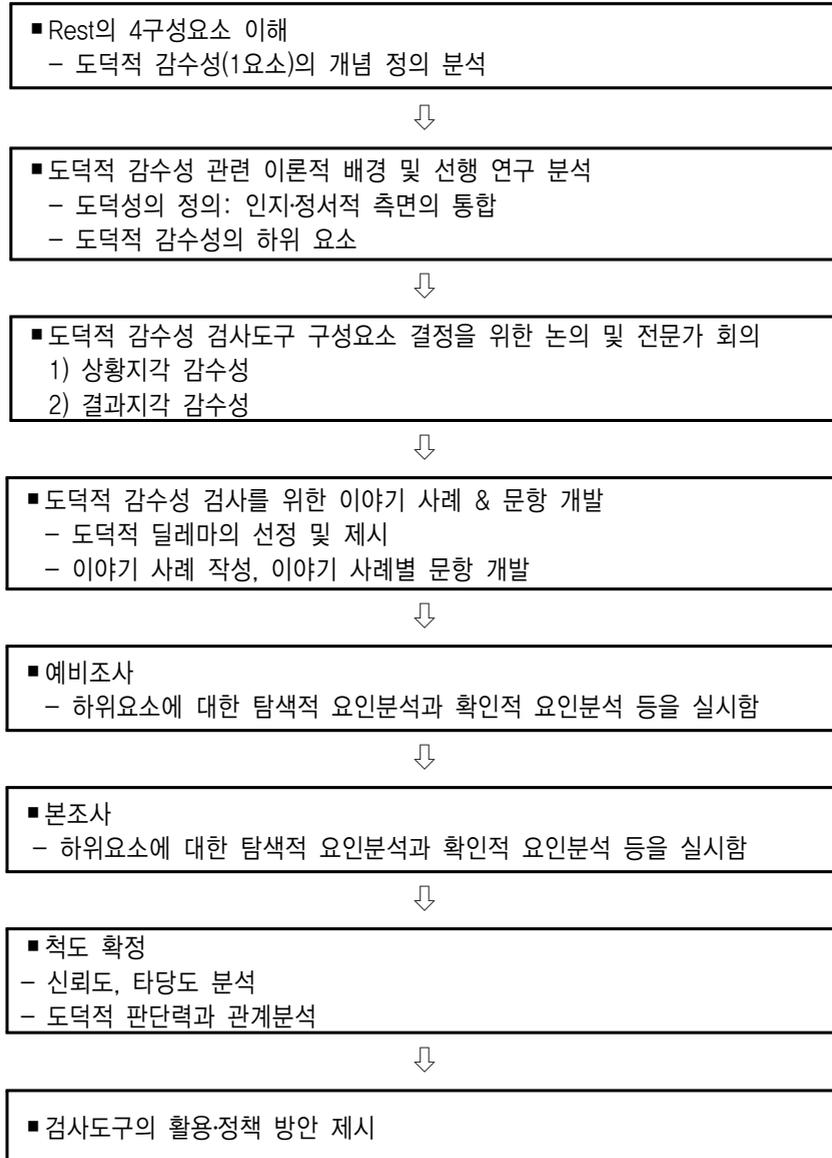
한편 도덕적 판단력은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모형에서 제2요소로서, 개인이 선택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Narvaez & Rest, 1995/2004). 제1요소인 도덕적 감수성에서 가능한 행동의 경로들과 그것이 타인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지각)이 이뤄지고 난 후, 제2 요소에서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최창욱, 임영식, 이인재, 박균열, 박병기, 2011). 문용린(2004)은 레스트가 개발한 도덕적 판단력의 검사도구인 DIT의 어려운 단어와 어렵게 표현된 진술문항을 쉽게 바꾸어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새로운 한국판도덕판단력검사(KDIT)를 재구성하였다. 1차년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연구에서 KDIT 사용의 타당성 등을 재차 검증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력의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KDIT를 사용하고 도덕적 감수성의 검사도구 개발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와 KDIT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두 개념 간에는 상관이 없거나

낮은 상관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 연구 2차년도인 본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에 개발된 감수성 검사도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형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용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의 딜레마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도덕적 감수성 척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 연구추진체계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도덕적 감수성 2차년도(2012년)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최종 개발, 확정하고 검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덕적 판단력의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되어져 있는 문용린의 KDIT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척도개발보다는 판단력 연구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검사 개발 연구 동향 파악

국내외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및 각 도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에 적극 반영하였다.

2)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하위영역 및 딜레마 설정

도덕적 감수성 1차년도(2011년) 연구에서 도덕성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레스트의 4구성모형(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레스트의 도덕적 감수성 개념을 충실히 유지하여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영역으로 상황지각, 결과지각 2개 영역을 중심으로 검사도구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1년 연구에서는 도덕성의 구성영역별로 상이한 딜레마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딜레마로 3가지 구성영역(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을 모두 측정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들의 생활밀착형 딜레마를 선정하고 지문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의 개발방향과 검사도구를 제시하였고, 연구진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검사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2년 7월에

제1차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고, 10월에 전국 규모의 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도구를 확정하였다.

4)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의 활용방안 제시

청소년들의 도덕적 감수성 및 판단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본 검사도구의 활용방안 및 도덕적 감수성 및 판단력의 유형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하위영역 구성 및 하위영역별 개념정립, 이론적 배경 검토 및 기존 검사도구의 장단점, 적용실태 및 한계 분석,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2) 협동연구협의회, 전문가자문회의, 정책협의회 개최

이 연구는 협동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 연구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청소년 도덕성의 4가지 구성 영역들은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영역들의 하위 요소들 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의 협업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조율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본 연구 담당자와 협동연구과제 수행 연구진(도덕적 감수성팀, 도덕적 동기화팀, 도덕적 품성화팀)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동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연구진 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3) 예비조사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을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 경기, 진주 등의 중학교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측정 도구의 문항내용을 수정하고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4) 본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도덕적 감수성 측정 도구로 중학교 학생 6,216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도덕적 감수성의 개념 및 하위요소 구성
2. 도덕적 감수성 선행연구 개관
3. 도덕적 판단력의 개념
4.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도덕적 감수성의 개념 및 하위요소 구성

1) 도덕적 감수성의 개념

도덕적 감수성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Rest, Bebeau & Volker, 1986)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정 상황 정보를 민감하게 지각하고(Narvaez & Rest, 1995/2004, p. 491), 가능한 행동을 상상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누가 영향을 받으며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의 복지에 끼칠 영향을 그들이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다(Rest, Bebeau & Volker, 1986). 말하자면, 도덕적 감수성은 도덕적 이슈의 존재를 지각하는 과정인 ‘도덕적 지각’과 주의를 집중하여 의식적으로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알아차리는 과정의 ‘도덕적 해석’(Narvaez, 1996, p.3)으로 이루어진다. 도덕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前) 과정에 있는 도덕적 감수성의 특징을 고려하며 요약하면, 도덕적 감수성이란 도덕적 딜레마의 현저한 특징을 알아차리는 능력(Jagger, 2011), 즉 “(특정 상황에서의) 도덕적 이슈 인식”이다(Jordan, 2007).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를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의 단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타웁(Staub, 1987)은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사건’을 분석하며 상황의 단서를 애매하게 해석하는 일이 남을 돕는 것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1964년 미국 뉴욕주 퀸스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강도에게 30분 동안이나 폭행을 당해 숨지기까지, 38명의 이웃사람들이 이를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돕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터뷰 결과, 당시 목격자들은 모두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몇몇 사람은 연인들 사이의 공연한 다툼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필요와 복지를 정확히 지각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가능한 결과들에 주목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데, 이러한 민감성의 유무는 당연히, 도덕적 행동의 표출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아야만 도덕적 문제로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상대가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지각한다.

레스트에 따르면 상황의 단서를 지각하는 일은 인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공감능력이 결정적으로 지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레스트는 호프만의 공감이론을 빌어 인지-정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을 도덕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설명하였다. 낮은 수준의 인지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 시절에도 공감이 일어나지만, 공감은 자기중심의 공감을 넘어서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 단계로 발달한다. 성숙한 공감 단계에서는 타인이 자신과 다른 존재임을 인지하면서도 타인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와 정서의 발달은 성인들이 특정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들을 생각해내고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행위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보통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강한 감정을 갖는데 이러한 반응은 암묵적이고 자동적이어서 반성적 판단 이전에 발생한다. 감정은 우리가 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면 도움을 주지만 혐오나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돕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레스트 이후의 학자들은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 특징을 다른 사람의 반응과 감정을 해석(이해)하기(Brabeck et. al., 2000), 공감이나 역할 채택(Sadler, 2004),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의 복지와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Butterfield, Trevin & Weaver, 2000; Rest, Narvaez, Thoma, & Bebeau, 1999)로 확장하여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감정이입과 역할채택, 친사회적 도덕추론 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도덕적 감수성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수정 보완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이명숙, 2011; 최경숙·김선희, 2001; Thompson & Hoffman, 1980).

마지막으로 레스트의 정의에서 상황의 인식이나 해석은 가치 중립적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이슈의 인식 또는 상황의 도덕적 가치 인식을 의미한다. 도덕적 이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가정한다. 타인의 복지나 필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무고한 남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규칙의 반영이다. 특히 비보우가 개발한 치과윤리 감수성 검사에서는 전문직 윤리강령이나 규칙들이 치과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이슈의 준거 역할을 한다.

자비심 혹은 보편주의 등 타인을 배려하는 가치들은 타인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덕적 감수성을 높여준다. 미리와 헬카마(Myry & Helkama, 2002)는 핀란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편주의와 자비심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도덕적 감수성이 높았으나 힘, 쾌락주의, 자극 추구 등과 같은 가치를 선호할수록 사회복지와 관련된 딜레마에서 도덕적 감수성이 낮았다.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비보우와 그의 동료들(Bebeau & Rest, 1982; Bebeau, Rest, & Yamoor, 1985)이 치과 대학생의 윤리적 감수성(Ethical sensitivity)을 측정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윤리적 감수성과 도덕적 감수성을 동일한 의미로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윤리적 감수성은 전문직 윤리강령에 기반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보우의 도덕적 감수성 정의를 참조하여 볼커(Volker, 1984, 문용린, 2002, 6~7에서 재인용)는 도덕적 감수성의 요인을 (1)중요한 사실의 지각(perception of the critical facts), (2)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의 지각(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to others), (3)윤리적 딜레마 해결의 책임 지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중요한 사실의 지각은 도덕적 문제의 정확한 규명으로, 사람이 개인, 집단, 기관, 사회 간의 상호관계는 물론 전문적 실천행위를 안내하는 윤리강령과 법령을 알고, 원인과 결과 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하고, 행동이 미칠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는 활동이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의 지각은 사실 지각이후에 이어질 과정으로,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행위의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딜레마 해결의 책임 지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지각하고 행위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능력이다.

볼커(1984)의 도덕적 감수성 연구는 의료윤리(홍성훈, 2000), 정보윤리(김향인, 2004), 인권 감수성 검사 도구(문미희, 2004; 문용린 외, 2002),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홍성훈·최창욱·박균열, 2011)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왔다.

2) 1차년도 연구 요약 및 한계점

2011년에 진행된 1차년도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인은 총 3개로써 상황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이다.

표 II-1 도덕적 감수성 하위요소

하위 요소	주요 내용
상황지각 감수성	특정 상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해석/지각할 수 있는 능력
결과지각 감수성	특정 행동의 결과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결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책임지각 감수성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할 책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능력

도덕성 검사에서 활용되는 딜레마의 주제는 검사 대상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 중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딜레마를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스토리는 ‘친구의 심부름’, ‘절박한 수행평가’, ‘점심시간’총 세 개이고, 각 스토리별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딜레마와 문항은 다음 <표 II-2>, <표 II-3>, <표 II-4>와 같다.

“친구의 심부름”

철호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면 그가 괴롭히는 바람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철호가 점심시간에 영배를 찾았다. 영배는 철호와와는 정반대로, 온순한 성격에다 몸이 약하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한다.

철호는 영배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말하면서, 학교 앞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말이 부탁이지 강요나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철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배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눈 딱 감고 그냥 빵 한번 사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지각	1. 친구를 위한 일인데, 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다
결과지각	2. 한번 빵을 사다주면 철호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상황지각	3. 친구를 위한 일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과지각	4. 영배는 빵을 사다주면서 속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책임지각	5.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책임지각	6. 도와줄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점심 시간”

즐거워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종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은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지각	1. 그런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책임지각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지각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책임지각	4. 정은, 지은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결과지각	5. 한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결과지각	6. 앞에 나가면 뒤처지는 애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될 수 있다

“절박한 수행평가”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스스로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지각	1. 친구 과제를 약간 고쳐서 내는 것이 감점당하는 것보단 더 나은 일이다
책임지각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상황지각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책임지각	4.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은 내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결과지각	5. 과제를 한번 그렇게 쉽게 해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결과지각	6. 남의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나 손해가 될 수 있다

1차년도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262명(중학생 116명, 고등학생 146명/ 남학생은 123명, 여학생은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덕적 감수성의 전체 신뢰도는 .8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차년도에 설정된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소로서 책임지각이 포함되는 것이 레스트 이론에 충실한 것인지는 논쟁이 있다. 볼커(1984)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책임을 지각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상황을 어떤 행동이 필요한 딜레마로서 지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

요소로 설정하였다. 책임지각이 상황의 사실적 요소를 지각하고 다차원적으로 상황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행위의 동기와 보다 긴밀하게 연관된다. 본 연구는 책임지각이 도덕적 감수성보다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 요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레스트의 사실지각과 결과지각만으로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소를 구성하였다.

3) 본 연구의 하위 구성요소

본 연구는 레스트와 볼커의 연구에 기초하여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볼커의 연구는 도덕적 감수성을 세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레스트와 볼커의 정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레스트가 공감과 감정과 인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의 도덕적 이슈를 지각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볼커는 공감의 작용을 포함하지만 공감을 통한 친사회적 행위가능성의 책임의식을 요인으로 설정하여 행위 동기화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레스트의 도덕적 감수성에 보다 충실하게 하위 구성요소로 사실지각과 결과지각의 2요인 모델을 계획하였다. 상황지각은 1) 도덕적 이슈를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 2)상황과 (상황에 대한) 대안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인식, 3) 상황의 감정적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지각은 1) 가능한 행위 결과를 지각하고, 2) 그 행위로 영향받는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 3) 행위결과의 도덕적 가치 지각으로 구성되었다.

표 II-5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요소

구성 요인		문 항
상황 지각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적 이슈 지각 예) 현민이는 할머니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도덕적 이슈(갈등)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결정이 타인의 복지나 필요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하는지의 여부를 묻음 예) 현민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친구뿐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적 가치 지각 예) 현민이의 고민은 남을 돕는 일과 관련된 것이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역할 채택과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처한 인물에 대한 역할채택과 공감 예)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할머니가 안타깝다.
결과 지각	행위 결과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행위 가능성을 고려하고 행위 결과를 지각 예)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느라고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가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은 이해할 것이다.
	행위에 대한 타인의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타인(일반타자) 정서적 반응결과 공감 예)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는다면 할머니는 고마워 할 것이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에 내재한 도덕적 가치 지각 예) 할머니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본 연구의 도덕적 감수성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레스트의 견해와 같이, 도덕적 감수성을 상황의 도덕적 이슈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인지-정서의 상호작용을 전제한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을 공감하고 가능한 행동 결과를 상상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포함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등장인물의 어려움이나 도덕적 가치의 위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도덕적 감수성의 정도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둘째, 도덕적 감수성의 규범적 정의를 채택하였다. 상황에 내재한 도덕적 가치를 지각하고 가치의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도덕적 감수성 문항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딜레마의 도덕적 이슈와 관련된 공정, 정직, 도움주기 등은 도덕적 옳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셋째, 상황의 도덕적 이슈 인식이라는 도덕적 감수성 정의에 충실하게 볼커의 사실지각과 결과지각만을 수용하여 하위요소를 구성하였다. 볼커는 (상황의) 중요한 사실 지각, 결과 지각, 책임지각의 세요인의 도덕적 감수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책임지각은 도덕적 상황인식보다 도덕적 행위 특히 돕는 행위와 더욱 관련이 있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인지적이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나아가 도움 행위를 결정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인적 책임의식이 없다면 이타적 행동을 동기화시키는데 비효율적이다(Maruyama, Fraser, & Miller, 1982; Lapsley 문용린 역, 2000, p.303). 이처럼 책임의식이 돕는 행위에 보다 결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책임지각 요소를 도덕적 감수성에서 제외하였다.

2. 도덕적 감수성 선행연구 개관

대부분의 국외 연구는 의사, 간호사, 회계사, 상담가 등 전문직 윤리의 감수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면(Jordan, 2007), 국내 연구는 전문직 도덕적 감수성은 물론 청소년 일반으로 확대하고 불커의 도덕적 감수성 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용 검사도구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도덕적 감수성 연구들이 주로 전문직 윤리 강령에 기초한 규범적 연구들로 있지만 도덕적 다원성을 고려한 기술적(descriptive) 관점에서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들도 있다.

1) 전문직 윤리감수성 연구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DEST는 미네소타 대학의 비보우 등(Bebeau et al., 198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치과 진료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내용으로 제작된 4개의 라디오 드라마를 치과 대학생들에게 들려준 후 극중의 의사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질문한 다음,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치과의사의 책임에 비추어 분석하여 점수화하는 개인용 척도이다. DEST의 채점자간 일치도는 .87이며 재검사 신뢰도는 .68이다(Bebeau & Brabeck, 1987). 이렇듯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만 스토리에 따라 민감성 지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민감성 지수가 스토리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Bebeau & Yamoor, 1985, Myyrry & Helkama, 2002).

국내에서 유사한 집단용 검사로 개발된 도구로는 홍성훈(2000)의 의사용 도덕적 감수성 검사(MEST: Medical Ethics Sensitivity Test)가 있다. 이는 의료에 관련된 딜레마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 형식의 영상물을 의료인에게 보여준 다음, 도덕적 감수성을 반영하는 17개 진술문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체크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 이지혜(2005)는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한 결과, 타인복지 감수성, 사태지각 감수성, 결과예측 감수성, 역할채택 감수성으로 설정하였다. 검사는 3개의 딜레마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속에서 도덕적인 문제들을 직접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지필검사)으로 진행되었는데,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채점자간 일치도는 0.95, 내적합치도는 0.66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검사 도구는 매우 특수한 전문영역의 감수성 검사도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덕적 감수성 도구로 사용하기 어렵다. 의료나 법, 과학 등 직업윤리 규준에 근거하여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는 검사는 일상생활의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에 적용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맥닐(McNeel, 1992)은 비보우 등(1985)의 연구를 토대로 대학생의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상적 딜레마를 제공하고 거기서 도덕적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의미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도덕적 지각 능력을 측정한 것이다. 이 검사를 위하여 먼저 대학생에게 일어나는 복합적인 윤리 문제를 주제로 10분 내외의 라디오 드라마 4편을 제작하였는데, 드라마 주제는 시험부정 행위, 학습 문제, 인종문제, 알코올 남용 등이었다. 학생들은 드라마를 듣고 난 후 개별적인 검사를 받았다. 즉, 그들은 드라마 상황에서 알아차린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녹음하여 매뉴얼에 따라 채점하는 방식이었다. 맥닐의 연구는 비보우의 연구보다 직업윤리 검사도구의 성격이 덜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사례는 아니다. 또한 두 검사 모두 인터뷰 방식이기 때문에 검사자와 피험자 모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검사도구이다.

2) 볼커의 도덕적 감수성에 근거한 연구들

볼커의 연구를 바탕으로 감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한 국내의 연구들이 있다. 인권 감수성 검사도구(문용린 외, 2002; 문미희, 200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들은 딜레마와 검사문항이 모두 지필평가라는 점에서 이전연구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국가인권위원회(문용린 외, 2002)가 주관하여 한국인의 인권의식 지표로서 인권 감수성을 검사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인권 감수성의 하위요소로서는 전술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처럼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감수성 등 3가지를 상정하였다. 5점 척도인 이 검사의 형식은 인권이 문제되는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미희(2004)는 사범대 학생의 인권의식 및 인권 옹호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권 감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일반용 인권 감수성 검사와 교직원 인권 감수성 검사를 제작하였다.

또한 김향인(2004)은 초등학생의 정보통신 윤리 감수성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윤리 감수성 척도를 제작하였다. 문미희의 인권 감수성 연구를 참고하여 하위요인으로 사실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3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2문항씩 개발하고 정보윤리 감수성 문항과 비감수성 문항을

구분하여 감수성 문항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합산하는 채점 방식을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839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타당도는 0.473~0.707로 나타났다. 한편 홍성훈·최창욱·박균열(2011)은 청소년의 도덕적 감수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도덕적 감수성의 요인을 사실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선정하고, 가치갈등을 담고 있는 세 딜레마를 통해 측정하였다. 문항내적 일관성은 0.84로 높았지만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낮았다.

불커의 요인에 근거한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이 국내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국외 연구자들의 활용결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동일한 요인을 설정하고 있지만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식은 연구자들마다 다르다. 하위 요인들과 도덕적 감수성 전체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여 요인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는 연구(문미희, 2004; 김향인, 2004)도 있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있다(홍성훈·최창욱·박균열, 2011). 전자의 연구는 타당도를 충족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후자의 연구는 문항내적 일치도는 높지만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할 경우 모델 적합도가 낮기 때문에 타당도를 개선한 검사도구 개발을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딜레마 스토리에 따라 요인 모델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특정 상황에 관한 스토리의 맥락에 따라 청소년의 감수성 지각 정도가 다르며 이는 검사도구의 타당도에 영향을 주었다.

3) 규범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의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감수성의 검사도구들은 도덕적 이슈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도덕적 준거를 가정하고 있다. 전문적 직업윤리 강령이나 규칙(이지혜, 2005; 홍성훈, 2000; Bebeau et al., 1985), 인권(문용린 외, 2002; 문미희, 2004), 정보윤리 관련 법이나 가치(김향인, 2004)는 각 딜레마 스토리에서 도덕적 판단을 안내하는 합의된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준거에 얼마나 민감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개발한 사례도 있다. 버터필드와 그의 동료들(Butterfileld, Trevino, & Weaver, 2000)은 경쟁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도덕적 감수성을 자신의 결정이 도덕 윤리적 표준과 충돌하며 자신 및 타인의 이익, 복지 및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응답자들에게 경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평가하도록 하였을 뿐 도덕적 내용의 인식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어윈(Erwin, 2000)은 심리상담의 도덕적 감수성을

개발하였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도덕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realization)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정의하고 있지만, 피험자에게 이슈에 대한 반응은 물론 전문상담과 감독자의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을 말하도록 하였다.

도덕적 감수성의 기술적 관점은 도덕적 감수성의 규범적 개념정의에 반대한다. 규범적 관점은 도덕성을 일련의 도덕규칙체계로 간주하고 정서적 직관을 무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모든 시민들의 도덕신념의 근거가 될 윤리강령(code)이 없다. 일상생활의 도덕적 이슈는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일견 물론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소수의 이견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의 도덕적 옳음을 판단하지 않고 도덕적 이슈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직업윤리 영역이 아닌 일상생활의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는 도덕이슈의 올바름을 전제하지 않고 도덕 이슈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측정해야 한다(Lovett & Jordan, 2010, p. 176-177).

이러한 기술적 접근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한 옳음의 기준은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 행위 실천 수준에서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과 정직을 보편적 가치로서 합의한다 해도 무엇이 공정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직이 유일한 가치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충돌하고 있는 다양한 도덕적 이슈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가치 다원화된 영역에 적합한 접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범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Lovett & Jordan, 2010, p. 178). 규범적 관점이 합의된 도덕적 규칙이나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딜레마를 제시하고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반해 기술적 관점의 검사 도구는 충돌하는 규칙이나 가치들의 인식 여부를 측정하는 차이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스토리가 도덕적 딜레마이냐 아니면 도덕적 행위선택의 문제 상황이냐의 차이를 보인다. 도덕적 감수성 지수가 스토리의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딜레마가 아닌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측정하는 스토리의 경우 도덕적 감수성 지수는 스토리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감수성 측정도구이기 때문에 규범적 관점을 취하였다.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공통 가치 및 정의의 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 도덕적 감수성 검사 도구처럼 공통의 도덕적 준거를 전제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기술적 관점의 도덕적 감수성 도구 역시 강한 가치 갈등의 사례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도덕적 감수성의 검사도구 개발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규범적 관점의 감수성 검사도구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의도적으로 도덕적 옳음이 분명한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에 내재한

도덕적 가치나 대안 행위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중심으로 도덕적 감수성 문항을 구성하였다.

3. 도덕적 판단력의 개념

도덕적 판단력 발달 연구는 삐아제(Piaget, 1932)로부터 시작하여 콜버그(Kohlberg, 1984)의 6단계이론으로 발전하였으며, 레스트(Rest, 1986)가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콜버그의 주관식 면담 검사를 객관식 검사인 DTI(Defining Issues Test)를 개발하면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문미희, 2006).

레스트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서, 행동에 관하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그들이 서로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안내라고 정의하면서(문용린, 1988), 도덕적 사고(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주목한다. 그는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4가지의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제1 요소), 도덕적 판단력(제2 요소), 도덕적 동기화(제3 요소), 도덕적 품성화(실행 능력: 제4 요소) 등의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최창욱 외, 2011).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이 실제로 표출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이들을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과정에서 필요한 제1 요소인 도덕적 민감성 또는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제2 요소인 도덕적 판단이다. 제1요소인 도덕적 감수성에서 가능한 행동의 경로들과 그것이 타인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지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제2 요소에서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요소는 도덕적 사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콜버그의 이론체계에서 도덕성으로 간주되던 것이지만, Rest의 모형에서는 단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최창욱 외, 2011).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개념화하며 판단하는 어떤 ‘인지적인 틀(mental set)’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의 틀’을 사람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틀을 콜버그는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이라 하였다(이돈희, 1994). 콜버그는 도덕적 판단력을

곧 도덕 행동으로 보고 도덕적 행동에 앞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고 했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력이 도덕적 추론(moral judgement)능력으로 대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도덕적 추론에 대해 나바에즈와 레스트(Narvaez & Rest, 1995)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의 경로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레스트 등(Rest, Narvaez, Thoma, & Bebeau, 1999)은 도덕적인 견지에서 가장 정당화 될 수 있는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인재 등(2011)은 ‘도덕적 이유 달기’로써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능력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발달론자들은 도덕적 판단력 혹은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에 대해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였다.

인지발달이론에서 보는 도덕성은 도덕적 특징이 관여되는 사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다. 이러한 인지적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도덕적 판단력이란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도덕성의 핵심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도덕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문용린, 2004). 종합하면 도덕적 판단력은 특정 상황에서 여러 선택적 상황 가운데 근거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도덕적 판단력 검사에는 콜버그가 개발한 MJJ(Moral Judgement Interview)와 레스트의 DIT(Defining Issues Test), 레스트의 DIT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문용린(1986)이 표준화한 KDJT 등이 있다.

1) 콜버그 도덕적 판단력 검사 MJJ(Moral Judgement Interview)

콜버그는 도덕 판단 인터뷰(The Moral Judgement Interview)를 통해 얻은 피험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184개의 발달 징표를 통한 채점방식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이 가상적인 도덕 갈등 상황에서 추론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도덕추론단계를 설정하였다(Colby et al., 1987; Kohlberg, 1984). 그는 피험자들에게 인권, 인간생명의 가치

등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내포한 갈등상황을 제시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얻어진 반응을 분석하여 발달징표를 세 가지 성취수준과 여섯 단계의 도덕추론단계를 설정하였다. 전인습적 도덕단계는 타율적 도덕과 도구적 도덕의 단계로 정리하고, 인습적 도덕단계는 상호관계적 도덕과 사회적 체계의 도덕 단계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후인습적 도덕단계는 사회계약적 도덕단계와 보편적 윤리원칙의 도덕단계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1958년부터 30여년에 걸쳐 인터뷰 방식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를 개발하였으며 세 가지 측정 방식인 문장과 이야기 채점법(Sentence and Story Rating), 구조적 주제 채점법(Structural Issue Scoring), 그리고 표준화 주제 채점법(Standard Issue Scoring)을 제시하였다(이인재 외, 2011에서 재인용).

본 검사는 도덕성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었으나,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평정이 달라질 수 있어 훈련받은 채점자가 필요하다는 점과 채점 방식이 주관식 서술형 측정이므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집단검사의 불가능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Rest의 DIT(Defining Issues Test)

레스트는 콜버그의 발달단계를 ‘대인간 상호기대의 조정’과 ‘손익의 균형화’라는 두 요소로 재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식 도덕적 판단력 검사인 DIT(The Defining Issues Test)를 개발하였다. 1972년에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언어로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DIT는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에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왔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양적인 척도가 레스트의 DIT이다(Kurtines & Gewirtz, 2004).

레스트는 콜버그의 발달징표가 어떤 발달징표가 다른 것에 비해 고차적인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표 II-6>와 같이 도덕성 발달 단계를 재정의하였다. 또한 레스트는 ‘대인간 상호기대의 조정’과 손익의 균형화’라는 두 요소에 대한 피험자의 개념화 수준을 통해 단계를 재평정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는 하나의 발달단계에만 속할 뿐 둘 이상의 단계에 속할 수 없고, 인지구조의 변화는 보다 점진적임을 강조하였다(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원현주, 2008).

표 II-6 도덕-단계 발달에 대한 Rest의 개념화

단계	공유되는 기대	중심개념
1	성인은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다.	복종: 시키는 대로 해라
2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상호간에 결정되는 것이다.	도구적 이기주의: 거래해 보자
3	개인은 상호호혜적인 역할채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대인간 조화: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
4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가는 공적인 법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회질서를 위한 법과 의무: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의무지어지고 보호받는다
5	법률을 만드는 공식적인 절차는 만들어진 것이다. 합리적 사람들은 이 절차를 수용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은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개인들 사이의 협동은 사회조직을 위해 논리적으로 필요하다.	비임의적 협동: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협동을 하느냐가 바로 도덕이다.”

* 출처: Lapsley (1996/2000, p. 170).

레스트는 MJT에서 나타나는 검사자의 주관으로 인한 단계 평정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DIT에서는 각 단계의 사고를 대표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피험자가 그것을 평정하도록 한다. 즉, DIT는 도덕적 갈등상황을 주고 피험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자신의 도덕적인 도식 중 활성화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진술문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Narvaez & Bock, 2002). DIT에서 피험자들은 일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딜레마가 표현된 6개의 가설적인 일화(남편의 고민, 학생 데모, 탈옥수, 의사와 환자, 고용주의 처지, 학생 신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하나의 문항과 likert Type Scale에 응답하는 12개의 문항, 문항에 대한 중요도의 순위를 정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Rest, 1994).

피험자들은 12개의 문항들에 대해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성에 따라 각 문항의 중요도를 5점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렇게 12개 항목을 모두 평가한 후에 피험자들은 위의 12개 항목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이인재 외, 2011). 검사를 통해 측정되는 2, 3, 4, 5A, 5B, 6단계 점수는 콜버그의 도덕발달 여섯 단계 중 각각 인습이전 수준인 2단계, 인습수준인 3단계와 4단계, 그리고 인습이후 수준인 5A단계와 5B단계 및 6단계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DIT를

활용한 연구는 대체로 5, 6단계 점수의 합으로 산출되는 P(%)점수가 사용된다. 원리 중심 도덕성을 나타내는 P(%) 점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인습 이후 수준인 5, 6단계의 판단을 반영하는 문항에 피험자가 비중을 두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의 결과 P(%)점수는 내적신뢰도가 약 .8수준으로 높고, 연령과 교육기간의 증가에 따른 발달 경향성을 잘 보여주며, 도덕교육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예민하여 타당도가 양호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수임이 입증되었다(Rest et al., 1999a, 1999b).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서술형 평가로서 대표적인 검사도구인 DIT는 다양한 언어로도 번안되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발달 경향성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문화권에서의 사용가능성이 높은 검사로 인정받고 있다(문용린 외, 2008). 아울러 DIT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객관식 검사이기 때문에 피험자의 자유반응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DIT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발달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DIT를 실시하기에는 중학교 2~3학년 이상의 언어능력이 요구되며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평이 있다. 그 이하 연령의 아동인 경우에는 딜레마 및 질문들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DIT는 도덕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문용린(2004)은 기존의 DIT를 한국의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 재구조화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문용린 외, 2008).

3) 한국판 DIT

도덕판단력검사(DIT)가 중학교 2~3학년 이상의 언어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덕발달의 초, 중기에 있는 초등학교의 도덕 판단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Rest, 1975). 이러한 언어이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등학교를 위한 도덕판단력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문용린(2004)은 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DIT의 어려운 단어와 어렵게 표현된 진술문항을 쉽게 바꾼 새로운 도덕판단력검사(KDIT)를 재구성하였다. 한국형 DIT는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올바른 반응을 얻기 위해 세 가지 딜레마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에 따른 36문항(3딜레마×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정된 DIT의 지문과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쓰는 어휘수준을 기준으로 조정되었다. 초등학교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어휘 수준을 낮춘 딜레마 3개(‘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와 그와 관련한 36개의 질문 문항으로 도덕판단력검사를 재구성하였다(장희선, 2010).

또한 초등학생의 도덕적 판단력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구현하기 위해 반체제 지향성을 나타내는 A문항과, 허세성의 M문항을 제거하고,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1단계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신뢰도는 .81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덕판단력 점수(P)의 신뢰도는 .6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이병희, 2004). 개정된 DIT의 적용가능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장희선(2006)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2004년에 수정된 딜레마의 단어, 문장, 문단, 글 수준의 이해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정된 한국판 DIT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홍성훈(2010)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판 DIT가 기존의 DIT 검사보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비록 KDIT가 DIT보다 검사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검사의 기본적인 구조와 지문 및 문항의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새 DIT는 기존의 DIT와 동등한 검사임이 검증되었다(문용린 외, 2008).

4) 관련연구

도덕적 판단력과 관련한 연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서는 도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어가고 대학에서의 도덕 및 시민교육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도덕 및 시민교육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도덕적인 인간의 육성과 민주적인 시민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문용린, 2002).

국외연구들은 레스트가 DIT를 개발하여 보고한 후, DIT를 사용한 다양한 메타연구와 신뢰도, 타당도, 문항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DIT 검사도구에 대한 검증과 연령에 따른 발달 경향성을 살펴거나, 도덕적 판단력과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또한 다수 진행되어 왔다(문용린, 1986; 문용린, 문미희, 1993 외 다수).

DIT가 측정하는 거시도덕적 판단력과 인권태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로는 겟츠(Getz, 1985), 나바에즈, 겟츠, 레스트와 토마(Narvaez, Getz, Rest, & Thoma, 1999), 레스트, 나바에즈, 비보우와 토마(Rest, Narvaez, Bebeau, & Rhoma, 1999b), 토마, 나바에즈, 엔디코트와 테리베리(Thoma, Narvaez, Endicott, & Derrberry, 2002), 테리베리와 토마(Derryberry & Thoma, 2005)의 연구들이 있다. 겟츠(Getz, 1985)의 연구에서 172명의 대학생과 성인 표본에서 DIT의 P점수와 인권태도 검사인 ATHRI(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Inventory) 점수와의 상관은

.66($p < .01$)이었다. Narvaez 등(1999)의 연구에서 96명의 성인표본에서 두 점수간의 상관은 .65($p < .01$)였고, 62명의 대학생 표본에서 두 점수간의 상관은 .52($p < .01$)였다. Derryberry와 Thoma(2005a)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도덕판단과 인권태도와의 강한 경로(.34)를 발견하였다(문미희, 2007).

국내에서는 DIT의 P점수와 독일판 도덕 판단 검사지인 MJT의 C점수 관계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이원봉, 2010)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박찬주(1989)의 연구에서 P와 D점수의 신뢰도(.64이상)를 검증하였으며, 김용주(2010)의 연구에서 .56~.62 수준의 높지 않은 신뢰도를 보고하였다(이인재, 2011).

의료분야의 연구로는 간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영미(2002)와 이미애(2006, 2008)의 연구가 있으며, 간호학과 학생대상과 의과대학생들의 연구(김익중, 2005; 김지영, 2004)등이 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상자의 권리 존중 및 보호의 책임과 전문직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DIT를 사용한 국내의 연구들은 DIT 자체의 타당성 및 문항분석을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DIT로 측정된 도덕적 판단력과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장희선 외, 2010).

제 3 장

검사도구 개발과정 및 조사방법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방향 및 특징
2. 예비조사 방법 및 절차
3. 예비조사 결과
4. 본조사 방법 및 절차

제 3 장 검사 도구 개발 과정 및 조사 방법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 도구 개발 방향 및 특징

1) 도덕성 종합검사를 위한 공통 딜레마 사용

2012년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 도구는 도덕성 하위요소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동일딜레마를 선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청소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선정하고, 선정된 딜레마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윤리전공 교수, 도덕 교사)의 검토를 거쳐 지필자료 형태로 딜레마를 제시하였다. 2011년에는 도덕성의 각 영역별 딜레마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던 부분을 2012년에는 딜레마를 통합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제외하고 동일 딜레마에 3가지 영역(감수성, 동기화, 품성화)의 문항을 모두 배치하였다.

2) 도덕적 감수성의 규범적 정의 채택

상황에 내재된 도덕적 가치를 지각하고 가치의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덕적 감수성 문항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딜레마의 도덕적 이슈와 관련된 공정, 정직, 도움주기 등은 도덕적 옳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이다.

3) 인지-정서의 상호작용을 전제

레스트의 주장처럼, 도덕적 감수성은 상황의 도덕적 이슈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인지-정서의 상호작용을 전제한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을 공감하고 가능한 행동 결과를 상상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포함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등장인물의 어려움이나 도덕적 가치의 위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도덕적 감수성의 정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4)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인으로 상황지각, 결과지각

상황의 도덕적 이슈 인식이라는 도덕적 감수성 정의에 충실하게 볼커의 사실지각과 결과지각만을 수용하여 하위요소를 구성하였다. 볼커는 (상황의) 중요한 사실 지각, 결과 지각, 책임지각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세요인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책임지각은 도덕적 상황인식보다 도덕적 행위 특히 돕는 행위와 더욱 관련이 있다. 책임지각이 상황을 사실적 요소를 지각하고 다차원적으로 상황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행위의 동기와 보다 긴밀하게 연관된다.

2. 예비조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홍성훈·최창욱·박균열, 2011)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2011년에 이루어진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높았지만 1) 3요인 모델이 요인분석결과 지지되지 않았으며, 2) ‘친구 심부름’ 딜레마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타당도 문제가 발견되었다(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2011).

2차년도 연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요인 적합성을 검토하고 요인에 맞는 검사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의 성격 및 내용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는 요인에 따른 검사 문항과 스토리 개발 부분에서 1차년도 연구와 크게 달라졌다.

1) 딜레마 선정

1차년도 연구 결과 문제 상황을 기술하는 스토리(vignette for study)의 강한 영향력이 발견되었고, 검사도구의 낮은 구인 타당도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에서 이러한 스토리의 영향력이 결코 새로운 결과인 것은 아니지만 (Rest, 1986; Myrry & Helkama, 2002), 다수의 스토리를 포함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한 개인의 도덕적 감수성 정도를 측정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스토리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구인 타당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스토리의 성격과 수, 그리고 개발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스토리의 성격에 대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실생활 도덕적 문제이며 선악이 뚜렷한 문제상황으로 제시하였다. 즉 스토리의 형태를 딜레마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는 도덕적 가치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형태의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준수해야 할 공통의 도덕적 가치를 전제하고, 가치 갈등의 문제 상황이지만 우선적으로 고려 할 가치가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규범적 관점의 검사도구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토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도덕성의 구성요소 공통의 스토리 개발방식을 택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의 검사도구 개발 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의 소재 및 갈등구조가 상이하여 팀 간의 도덕성 개념의 차이와 스토리의 질이 문제가 되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팀이 협력하여 작년 연구를 분석하여 비교적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하게 나타난 딜레마를 활용하여 공통적으로 세 개의 실생활 딜레마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도덕성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과 도덕성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모든 연구진이 함께 모여 대표 딜레마의 선정 방식 및 수정을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감수성에서는 과제검사, 동기화에서는 작품, 품성화에서는 콘서트를 가다가의 딜레마가 선정되었으며, 도덕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고루 측정해야 하기에 딜레마의 내용을 도덕성의 하위요인들이 고루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 번 수정·보완하였다.

2) 하위 구성요인의 추출

본 연구는 레스트와 볼커의 연구에 기초하여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볼커의 연구는 도덕적 감수성을 세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레스트와 볼커의 정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레스트가 공감과 감정, 인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의 도덕적 이슈를 지각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볼커는 공감의 작용을 포함하지만 공감을 통한 친사회적 행위가능성의 책임의식을 요인으로 설정하여 행위 동기화를 강조하고 있다.

도덕적 감수성을 도덕적 이슈의 지각, 상황해석 및 (자신의 행위)결과를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1차년도 연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도덕적 감수성의 요인 및 관련된 검사문항에서 차이가 있다.

표 III-1 요인 및 검사 문항에 대한 1차년도 연구와 비교

구분	1차년도 연구	본 연구
요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요인 모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요인 모델 -상황지각, 결과지각
요인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배경에서만 인지-정서의 상호작용을 다룸: 공감과 감정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정서적 상호작용을 이론적 배경과 검사문항 모두에 반영
검사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문항 요인별 2개 문항 (총 6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문항 삭제 요인별 5문항~6문항 요인의 구성 내용을 상세화하여 문항 개발 -상황지각:도덕적 이슈지각, 도덕적 가치지각,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지각 -결과지각: 행위결과 지각, 행위결과에 대한 타인의 감정 지각

본 연구는 레스트의 도덕적 감수성에 보다 충실하게 하위 구성요소로 사실지각과 결과지각의 2요인 모델을 계획하였다. 상황지각은 1) 도덕적 이슈를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 2)상황과 (상황에 대한) 대안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인식, 3) 상황의 감정적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지각은 1) 가능한 행위 결과를 지각하고, 2) 그 행위로 영향 받는 사람들의 감정의 공감, 3) 행위결과의 도덕적 가치 지각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2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

구성 요인		문 항
상황 지각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적 이슈 지각 예) 지원이는 친구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다면 수행평가를 제출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도덕적 가치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및 (상황에 대한) 대안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 인식 예) 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에 처한 인물에 대한 공감 예) 몸이 아파 과제를 못한 지원이가 안타깝다.

결과 지각	행위 결과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행위 가능성을 고려하고 행위 결과를 지각 예)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공정하게 평가 받지 못할 것이다.
	행위에 대한 타인의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타인(일반타자) 정서적 반응결과 공감 예)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화를 낼 것이다.

3) 감수성 검사 예비문항 개발

다음으로 앞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지각, 결과지각 2가지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구성하고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딜레마별 상황지각 5문항, 결과지각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상황지각 안에는 도덕적 이슈(갈등) 지각 1문항, 도덕적 가치판단 2문항, 상황에 대한 감정 2문항, 결과지각에는 행위결과지각 3문항, 행위에 대한 타인의 감정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예비조사를 위한 문항은 <Ⅲ-3>과 같이, 3개의 딜레마에 상황지각 15문항과 결과지각 15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딜레마와 딜레마별 문항은 <Ⅲ-4>, <Ⅲ-5>, <Ⅲ-6>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3 도덕적 감수성 문항 구성

구분	예비조사	
	하위구성요인	문항수
상황 지각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3
	도덕적 가치 지각	6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6
결과 지각	행위 결과 지각	9
	행위에 대한 타인의 감정	6
2개요인	6개 하위 요인	총 30문항

표 III-4 도덕적 감수성 첫 번째 딜레마 문항 구성

〈과제 검사〉

오늘은 지원이가 중요한 도덕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다. 이 과제는 환경윤리 문제에 대한 것인데, 지원이는 그동안 몸이 아파서 과제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도덕 시간은 5교시이다.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 과제는 나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내가 친구의 과제를 베낀 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번 과제는 점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원이가 과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마침 지원이의 짝은 과제를 다 해왔다. 게다가 짝은 지원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일인 양 자기의 과제를 보여주려고 한다.

만약 내가 지원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1. 지원이는 친구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다면 수행평가를 제출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상황지각	2. 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다.
	3. 짝의 과제를 베껴 성적을 받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4. 만일 내가 지원이라면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것 같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5. 몸이 아파서 과제를 못한 지원이가 안타깝다.
결과지각	6. 지원이가 낮은 성적을 받게 될지라도, 친구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다.
	7.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공정하게 평가 받지 못할 것이다.
	8. 만일 지원이가 친구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했다가 발각되면 지원이의 행동은 비난받을 것이다.
	9.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화를 낼 것이다.
행위 결과 지각	10.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이 당장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지원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표 III-5 도덕적 감수성 두 번째 딜레마 문항 구성

〈콘서트를 가다가〉

현민이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오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가 일 년 만에 열리는데, 입장권을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둘러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는 순간,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할머니를 치는 장면을 보았다. 쓰러진 할머니를 두고 그 사람은 아무 조치도 없이 황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민이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민이는 오늘따라 서둘러 나오느라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민이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만약 내가 현민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1. 할머니를 돕게 된다면 현민이는 콘서트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상황지각	2. 사고를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일이다.
	3. 현민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고 콘서트에 가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일이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4. 내가 할머니라면 누구라도 와서 도움을 주기를 바랄 것이다.
	5.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행위 결과 지각	6. 현민이가 콘서트에 가지 못하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행동이다.
	7. 현민이가 콘서트에 간다면 할머니의 생명이 위급할 수 있다.
결과지각	8. 할머니를 돕지 않고 콘서트에 간 사실이 알려진다면 현민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9. 가고 싶은 콘서트에 가지 않고 할머니를 돕는다면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족들은 현민이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행위 결과 지각	10. 콘서트에 가지 않고 할머니를 돕는 것이 당장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표 III-6 도덕적 감수성 세 번째 딜레마 문항 구성

〈부서진 작품〉

윤서는 같은 반 친구가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친구는 축제 기간 동안 반 친구 전체가 공들여 만든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그 친구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리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윤서 자신이었다. 윤서는 자신 때문에 비난 받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한다면 윤서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윤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상황지각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1. 윤서는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도덕적 가치 지각 2.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3. 윤서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4. 윤서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5. 만일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불쾌하고 속상할 것이다.
결과지각	행위 결과 지각 6. 윤서가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친구는 그동안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7.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윤서의 친구는 반 아이들에게 나쁜 아이로 낙인찍힐 것이다.
	행위에 대한 타인의 감정 8. 만일 윤서가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윤서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9. 만일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오해받던 친구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행위 결과 지각 10. 윤서가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당장은 비난을 면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예비조사 실시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1차년도 도덕성 측정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용 도덕적 감수성 측정 도구(Moral Sensitivity Test)를 보다 정교화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분석에서는 감수성의 구성요인을 재검토하고 청소년들의 도덕적 갈등 및 문제 사례문도 수정하여 제작된 2차년도 검사 도구의 타당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감수성 하위 구성요인과 딜레마의 상황이 1차년도 검사 도구와 달라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석은 매우 탐색적이며 결과 또한 검사의 표준화와 정교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4) 예비조사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의 목적과 성격에 근거하여 기술통계결과, 신뢰도, 및 타당도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감수성을 이루는 하위 요인의 구조적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도덕적 감수성의 조작적 의미가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인지와 예상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 특성이라 정의한다면 이러한 상황인지와 결과인지가 도덕적 감수성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딜레마 상황 간 감수성의 하위 요인의 타당도 분석을 교차로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항 구성과 결과가 딜레마 상황과 독립적으로, 즉 딜레마 상황 간 차이가 없는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검사 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딜레마의 상황에 따라 감수성 하위 요인의 타당도 분석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감수성 요인이 하위 요인에 근거하여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연구 분석 자료

도덕적 감수성 검사 도구의 표준화 탐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된 도덕성 검사도구의 응답을 요청하였다. 안정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결측치를 모두 제외한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 표본의 수는 409명이었다. 표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연구분석 표본

지역	인원(%)	성별	인원(%)
경기	100(24.4)	남	197(48.2)
서울	109(26.7)		
인천	101(24.7)	여	212(51.8)
진주	99(24.2)		
합계	409(100)	합계	409(100)

(3) 도덕적 감수성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감수성 측정 도구는 총 2개의 하위 요인(상황지각, 결과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지각 문항은 다시 사실적 판단과 도덕적 가치 판단, 결과지각은 딜레마 행동의 결과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5점 척도로 구성된 검사 도구와 하위 요인 및 내용은 다음 <표 Ⅲ-8>과 같다.

표 III-8 **도덕적 감수성 검사 도구**

도덕적 감수성 요인		문항 수	문항 내용
상황지각	도덕적 갈등지각	1 문항	해당 상황이 도덕적 상황에 대한 갈등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상황에 대한 감정	2 문항	상황에 대한 공감
	도덕적 가치 지각	2 문항	해당 상황이 특정한 도덕적 가치(공정성, 정직 등)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지각	행위결과지각	5 문항	딜레마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판단
	행위에 대한 타인의 감정	2 문항	결과에 대한 독자의 공감

(4) 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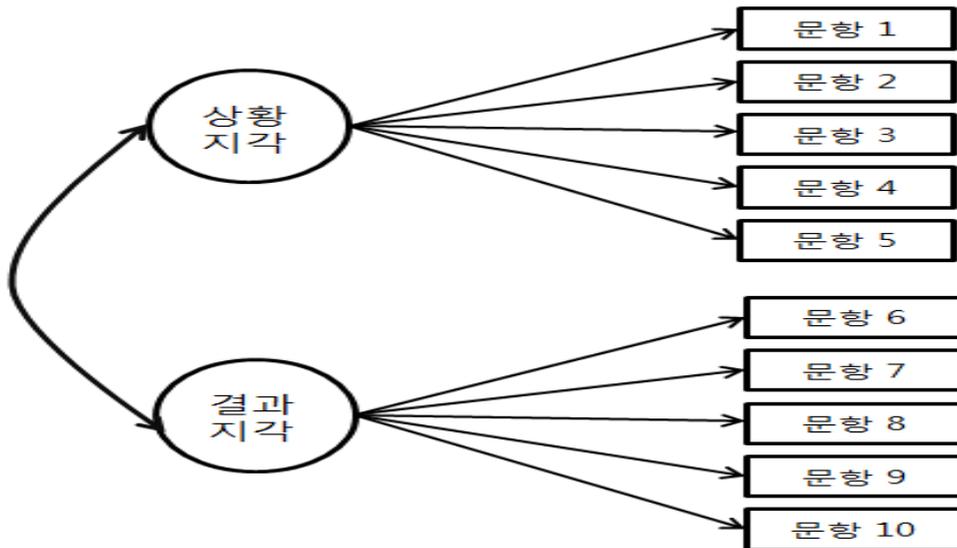
먼저 문항의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자료와 응답분포를 살펴보았다. 해당 과정은 일반적인 검사 타당도 분석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와 같이 검사의 정확성과 문항의 수정 및 검사 표준화 의 예비조사로써의 분석이 중심일 경우 일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에 기반하여 응답의 일치성이 떨어지거나 이론과 달리 해당 요인에 묶이지 않는 문항들을 찾아 그 원인과 추후 수정 방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요인분석의 경우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이론에 의해 설정된 요인의 수가 적절하게 추출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정확성 또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수립된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가설 모형의 검증으로부터 기술통계와 신뢰도분석,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정된 모형의 분석까지 실시하였다. 더불어 전체 딜레마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수립된 요인의 구성이 타당화 될

수 있도록 즉, 딜레마에 종속적이지 않은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딜레마 간 감수성 문항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이는 추후 수정될 검사에 있어 딜레마 간 문항형식의 통합성, 이론구조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5) 분석 기법과 분석 모형

기술통계와 신뢰도분석을 위하여 SPSS 19.0을 이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의 경우 SPSS 19.0을 이용한 요인분석과 Mplus에서 제공하는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Asprouhov & Muthén, 2009)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특히,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고유값(eigen value)에 기초한 결과와 구조방정식에서 제공하는 모형 적합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확인적 분석방법의 경우 이론적 배경, 1차년도 분석결과, 그리고 본 자료의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¹⁾에 기초하여 요인 간 상관성이 존재하는 모형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분석 모형은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도덕적 감수성 확인적 분석 모형

1) 부록 1에 제시.

3. 예비조사 결과

1) 예비조사 문항의 기술통계와 응답빈도 분석

본 결과는 문항의 일반적인 응답 수준을 확인하고 추후 문항 수정과 관련하여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통계와 문항 반응 결과는 다음 <표 III-9>, <표 III-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에 따르면 모든 문항의 평균이 3.5 이상으로 나타나 응답 참여 청소년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지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콘서트를 가다”와 “부서진 작품”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 평균이 4.0으로, “과제검사”의 경우 다른 두 딜레마 상황의 응답보다 평균이 약간 낮았으나 대부분 4.0에 가까웠다. 표준 편차 결과에서는 개별 딜레마에서 한 문항씩을 제외하고 모두 1보다 작았다. 4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편차가 이렇게 작은 것은 분포가 특정 응답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이는 왜도와 첨도값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문항의 왜도 값이 부적으로 나타나 이는 응답이 4점과 5점 척도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첨도의 경우에도 그 값이 정적인 문항이 대부분인데 분포의 높이가 기준 정규분포의 예상빈도(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참여자의 응답이 특정 척도(예를 들어, 4점과 5점)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도덕적 감수성이 높으며 응답의 분포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측정치에 치우쳐져 있다.

표 III-9 기술통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과제 문항1	3.85	.98	-.93	.67
문항2	3.93	.87	-.75	.62
문항3	4.00	.81	-.80	1.08
문항4	3.47	1.01	-.21	-.52
문항5	3.75	.99	-.69	.34
문항6	3.58	1.01	-.54	-.00
문항7	3.88	.85	-.67	.40
문항8	3.95	.93	-.72	.26
문항9	3.96	.92	-.83	.52
문항10	3.90	1.00	-.84	.39
콘서트 문항1	3.97	.95	-1.28	1.80
문항2	4.26	.75	-1.27	2.92
문항3	3.84	1.06	-.91	.32
문항4	4.42	.82	-1.70	3.39
문항5	4.39	.71	-1.13	1.60
문항6	4.08	.88	-.72	-.09
문항7	4.29	.74	-.93	.94
문항8	3.80	.99	-.65	-.13
문항9	4.52	.68	-1.48	2.58
문항10	4.10	.91	-.93	.61
작품 문항1	4.16	.79	-1.02	1.75
문항2	4.08	.80	-.73	.62
문항3	4.07	.77	-.61	.30
문항4	4.16	.81	-.95	1.18
문항5	4.42	.75	-1.31	2.15
문항6	3.98	.90	-.95	.93
문항7	3.92	.93	-.71	.08
문항8	4.25	.75	-.93	.87
문항9	3.81	1.00	-.69	-.13
문항10	3.89	.97	-.73	.24

표 III-10 응답 반응 분포

문항 \ 응답	1	2	3	4	5
과제 문항1	12(2.9)	30(7.3)	68(16.6)	195(47.7)	104(25.4)
문항2	5(1.2)	19(4.6)	82(20.0)	196(47.9)	107(26.2)
문항3	4(1.0)	12(2.9)	72(17.6)	211(51.6)	110(26.9)
문항4	10(2.4)	58(14.2)	128(33.7)	135(33.0)	68(16.6)
문항5	14(3.4)	22(5.4)	112(27.4)	165(40.3)	96(23.5)
문항6	16(3.9)	37(9.0)	123(30.1)	161(39.4)	72(17.6)
문항7	3(7)	26(6.4)	80(19.6)	210(51.3)	90(22.0)
문항8	6(1.5)	20(4.9)	90(22.0)	166(40.6)	127(31.1)
문항9	6(1.5)	24(5.9)	73(17.8)	183(44.7)	123(30.1)
문항10	11(2.7)	25(6.1)	83(20.3)	164(40.1)	126(30.8)
콘서트 문항1	14(3.4)	22(5.4)	41(10.0)	218(53.3)	114(27.9)
문항2	5(1.2)	4(1.0)	38(9.3)	196(47.9)	166(40.6)
문항3	16(3.9)	35(8.6)	66(16.1)	175(42.8)	117(28.6)
문항4	5(2)	9(1.5)	29(7.3)	132(41.3)	234(49.6)
문항5	1(2)	6(1.5)	30(7.3)	169(41.3)	203(49.6)
문항6	1(2)	22(5.4)	71(17.4)	166(40.6)	149(36.4)
문항7	1(2)	7(1.7)	42(10.3)	180(44.0)	179(43.8)
문항8	7(1.7)	42(10.3)	82(20.0)	174(42.5)	104(25.4)
문항9	1(2)	4(1.0)	24(5.9)	131(32.0)	249(60.9)
문항10	5(1.2)	18(4.4)	68(16.6)	160(39.1)	158(38.6)
작품 문항1	4(1.0)	8(2.0)	51(12.5)	202(49.4)	144(35.2)
문항2	2(5)	12(2.9)	66(16.1)	200(48.9)	129(31.5)
문항3	1(2)	11(2.7)	69(16.9)	205(50.1)	123(30.1)
문항4	3(7)	11(2.7)	54(13.2)	191(46.7)	150(36.7)
문항5	3(7)	1(2)	43(10.5)	138(33.7)	224(54.8)
문항6	6(1.5)	24(5.9)	60(14.7)	201(49.1)	118(28.9)
문항7	4(1.0)	31(7.6)	76(18.6)	179(43.8)	119(29.1)
문항8	2(5)	7(1.7)	54(13.2)	170(41.6)	176(43.0)
문항9	7(1.7)	45(11.0)	74(18.1)	177(43.3)	106(25.9)
문항10	9(2.2)	24(5.9)	93(22.7)	162(39.6)	121(29.6)

개별 딜레마 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면 “콘서트를 가다”와 “부서진 작품”의 기술통계 결과가 매우 비슷하며 “과제검사”에 있어 감수성에 대한 상황인지와 결과인지가 다른 두 딜레마 경우보다 약간 낮으며 분포 또한 치우친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통계 결과이므로 딜레마 간 문항 요인구조의 타당성은 추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두 개의 요인에 대한 문항 결과를 확인해 보면, 딜레마 별 1번에서 5번의 결과(상황인지) 및 6번에서부터 10번 문항 결과(결과인지)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특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딜레마 상황에 따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여자의 응답이 감수성의 하위 요인에 의거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응답 반응 분포에서도 약 70% 이상의 참여자 응답이 긍정적인 척도(4점과 5점 척도)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인지나 결과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이 몇 개 있는데 “과제 검사”에서 유독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과제 검사” 문항 4번과 6번이 부정적이고 중간 응답이 약 50%에 가까워 다른 문항들의 응답과 상대적으로 달랐다. 기타 딜레마 상황의 문항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콘서트를 가다”와 “부서진 작품”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90%에 가까운 문항이 거의 대부분 이었다. 응답분포 결과에 있어서도 기술통계와 비슷하게 감수성의 요인구조별로 유사성보다는 딜레마상황 별 동일성이 더 큰 경향이 있었다.

2)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

딜레마 상황 내와 상황 간, 그리고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분석 결과(크론바흐 알파)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표 III-11 예비조사 신뢰도

문항	딜레마 내 하위요인 신뢰도	딜레마 내 신뢰도	딜레마 간 하위요인 신뢰도	딜레마 전체 신뢰도
과제 문항1	.56	.79	.81	.90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78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0				
콘서트 문항1	.71	.83	.8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78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0				
작품 문항1	.80	.83	.8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69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0				

개별 딜레마 내에서 상황지각 요인과 결과지각 요인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면 “과제 검사”의 상황지각 관련 문항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번 또는 5번을 삭제한 후 변화된 알파값이 .57과 .58로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신뢰도 .56과 비슷하여 문항 제거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뢰도가 낮은 요인은 “부서진 작품”에서 결과 지각 관련 문항 신뢰도인데, 특정 문항을 삭제할 경우 .69보다 낮은 신뢰도 결과를 얻기 때문에 문항 삭제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그 외의 경우 .70 이상의 알파값을 얻었기 때문에 문항 응답의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딜레마 내 신뢰도에 있어서도 .79부터 .83 사이의 값을 얻어 전반적으로 신뢰가 있다고 판단된다. 딜레마 상황 간 두 도덕적 감수성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상황지각의 경우 .81, 결과지각의 경우 .85로 높았으며 전체 30문항의 신뢰도는 .90이었다. 일반적으로 문항의 수가 증가하면 크론바흐 알파값도 증가하기 때문에 딜레마 내 하위요인(각 5문항)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신뢰도 분석에서는 .60 미만의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이 하나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문항 삭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문항 수정 및 삭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예비조사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의 결과는 요인의 수 및 문항과 요인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이론에 근거하여 수립된 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탐색적 및 확인적 결과에 기초한 수정된 모형을 수립하는 분석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한다.

(1) 탐색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최대우도추정방법과 사교회전(oblique rotation)을 사용하였다. <표 III-12>와 <표 III-13>은 각각 SPSS 19.0에서 얻은 결과와 Mplus 6.21에서 얻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며 전자에서는 고유값이 1 이상, 후자의 경우는 Hu와 Bentler(1999)에서 제시한 모형 적합도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한 요인의 수를 판별하였다.

<표 III-12>에 의하면 모든 딜레마 상황에 있어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2개이었으며 3개 이상일 경우 개별 요인의 고유값이 1 미만이었고 이후 누적 분산의 퍼센트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요인의 수는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총 분산에 근거한 요인분석 결과

딜레마	요인 수	초기 고유값		
		합계	%분산	%누적
과제	1	3.81	38.12	38.12
	2	1.23	12.25	50.38
	3	.93	9.27	59.65
콘서트	1	4.35	43.47	43.47
	2	1.23	12.29	55.75
	3	.91	9.11	64.86
작품	1	7.07	40.70	40.70
	2	1.10	11.04	51.74
	3	.96	9.61	61.52

다음 <표 III-13>에서는 구조방정식에서 제공하는 모형 적합도가 요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딜레마상황에서 요인의 수가 1개인 경우 카이제곱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CFI와 TLI는 .90 미만이었다. 또한, RMSEA도 .10을 넘었으며 SRMR도 .05을 넘고 있어 요인이 1개라는 가설은 선택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의 수가 2개일 때 카이제곱검증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CFI와 TLI는 각각 .95 및 .90 이상이었으며 RMSEA도 .06-.07 사이의 값을 보였고 SRMR은 .03으로 우수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요인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카이제곱검증이 기각되지 않는 등 거의 완벽한 모형 적합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형 간 비교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적합도 지수는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 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와 간명성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BIC)를 이용하여 모형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BIC의 값이 작을 경우 더 좋은 적합도지수를 나타내게 된다. “과제 검사”에서는 요인 수 2개인 경우와 3개인 경우의 BIC의 차이가 5.96이었으며 “콘서트를 가다”의 경우에는 7.18이었다. Raftery(1995)에 의하면 BIC 차이가 4 미만이면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며 4이상 7미만이면 더 복잡한 모형이 우수하다는 중간 정도(medium evidence)의 증거를, 그 이상이면 매우 강한 증거(strong evidence)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수가 2개와 3개일 경우 차이 검증 결과가 중간 정도의 영역에 속하고 있어 선택에 있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요인 수가 2개일 때의 기타 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부서진 작품”의 경우에는

요인 2개 모형의 BIC 지수가 3개 모형보다 작으므로 표본의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요인의 수는 2개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모든 딜레마의 요인 수는 이론적 근거에서 제시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2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3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수	모형 적합도					
		chi-square	CFI	TLI	BIC	RMSEA	SRMR
과제	1	189.21***	.85	.80	9118.18	.12	.06
	2	63.54***	.96	.92	9040.61	.07	.03
	3	15.48	.99	.99	9034.65	.03	.01
	4	5.71	1.00	1.00	9060.96	.00	.01
콘서트	1	214.69***	.87	.83	9149.94	.11	.06
	2	73.59***	.97	.94	9062.96	.06	.03
	3	18.30	1.00	1.00	9055.78	.00	.01
	4	6.52	1.00	1.00	9086.10	.00	.01
작품	1	179.18***	.87	.84	9383.35	.10	.06
	2	74.61***	.96	.93	9332.90	.06	.03
	3	34.12*	.99	.97	9340.53	.05	.02
	4	3.38	1.00	1.00	9387.96	.00	.00

참조: p < .001 ***; p < .01 **; p < .05 *

다음으로 요인이 2개 일 경우 요인 구조 행렬의 결과를 확인하면 다음 <표 Ⅲ-14>와 같다.

표 III-14 **요인 구조행렬**

	과제 검사		콘서트를 가다		부서진 작품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문항 1	.093	.773	.048	.718	.520	.478
문항 2	.694	.304	.632	.586	.841	.242
문항 3	.650	.390	.563	.285	.806	.264
문항 4	.617	.052	.414	.794	.743	.493
문항 5	.143	.649	.568	.675	.679	.472
문항 6	.547	.409	.807	.164	.356	.679
문항 7	.708	.204	.797	.459	.255	.737
문항 8	.757	-.039	.652	.091	.510	.601
문항 9	.763	-.026	.556	.690	.334	.678
문항 10	.705	.099	.722	.347	.650	.452

참조: p < .001 ***, p < .01 **, p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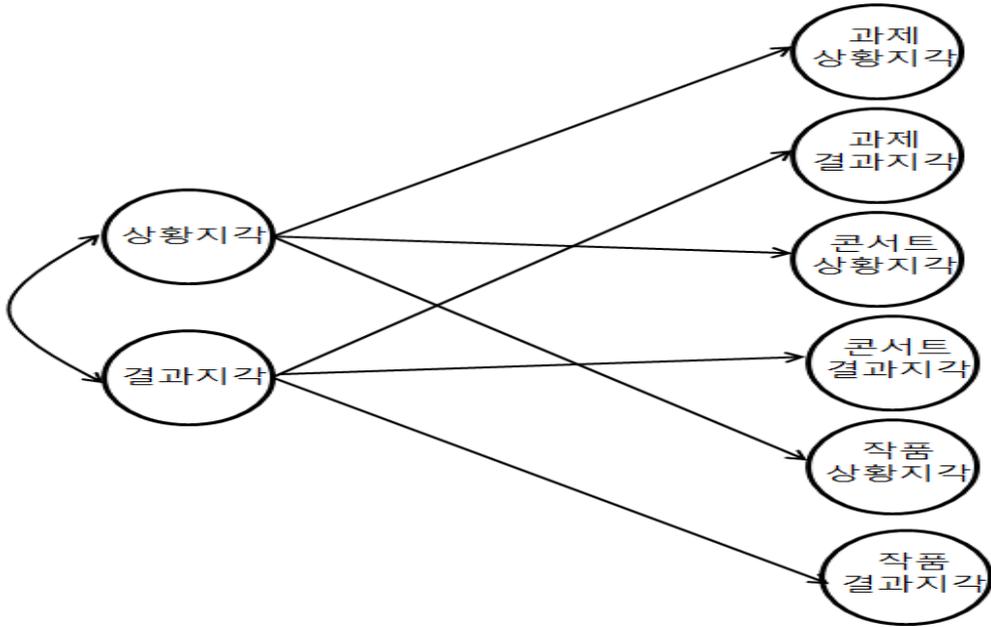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각 요인 부하량 및 구조행렬에 표준편차를 제공하여 통계적 유의미 정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과제 검사” 딜레마 상황에서는 요인 1에 문항 1과 5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항들이 모두 하나의 요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항 6은 두 요인 모두 중 어디에 속하여도 비슷한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검사의 구성에서 문항의 분류는 1-5번까지가 상황지각, 6-10번이 결과지각임을 감안할 때 요인 분석 결과가 이론에 부합하지는 않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은 추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콘서트를 가다”에서는 요인 1에 문항 2, 3, 6, 7, 8, 10번이, 요인 2에서는 1, 4, 5, 9번이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2, 5, 9는 두 요인 모두 중 어디에 속하여도 비슷한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서진 작품”에서는 요인 1에 문항 1, 2, 3, 4, 5과 10번이 요인 2에 6, 7, 8, 9번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1과 8번은 두 요인 모두에 속할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도덕적 감수성의 두 요인의 상관을 허락할 때 명확히 두 요인으로 나뉘는 공통적인 문항이 개별 딜레마 상황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다만, 상황지각에서는 문항 1, 4, 5가 결과지각에서는 6, 7, 8, 9번이 묶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결과를 보았을 때 문항 10번과 2번과 3번은 딜레마 상황별로 상황지각요인에 또는 결과지각요인에 각각 속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확인적 요인 분석

다음으로 [그림 III-2]에서 제시된 도덕적 감수성 확인적 분석 모형 검증을 하였다. 딜레마 상황별

모형의 결과는 다음 <표 Ⅲ-15>과 같다. 해당 결과에서는 기본적인 측정변인과 요인 구조는 앞에서 제시된 그림과 같으며 모형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측정변인 간의 오차 상관을 허용함으로써 적합도 지수를 개선하였다. 더불어 딜레마 간의 확인적 요인 구조 모형도 같이 분석하였다. 이의 경로도는 다음 [그림 Ⅲ-3]와 같다.



【그림 Ⅲ-2】 딜레마 통합적 2수준 요인구조 모형

표 Ⅲ-15 확인적 분석 모형

	모형 적합도					
	chi-square	CFI	TLI	BIC	RMSEA	SRMR
과제	79.08***	.96	.94	10140.98	.06	.04
콘서트	129.35***	.93	.90	9088.65	.09	.05
작품	68.03***	.97	.95	9296.25	.05	.04
통합모형	949.92***	.86	.84	28471.8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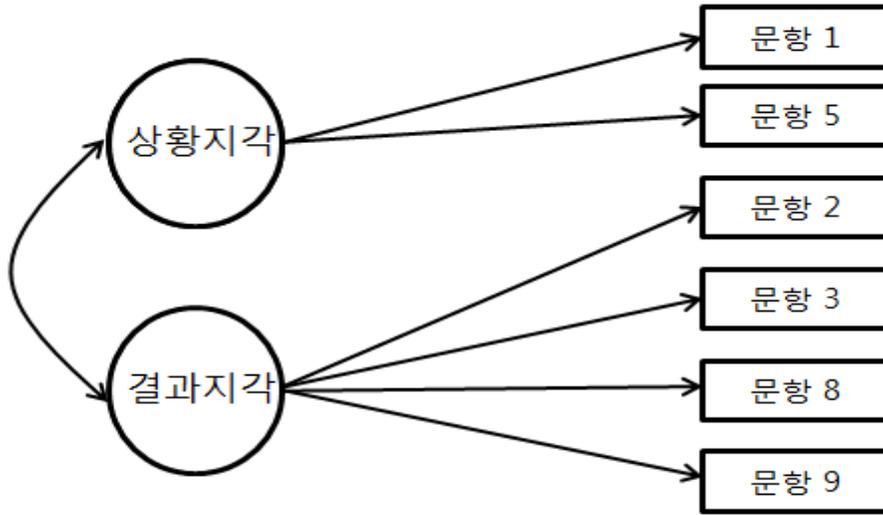
참조: p < .001 ***; p < .01 **; p < .05 *

딜레마 상황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 카이제곱 검증은 모두 기각하였으나 CFI와 TLI는 .90 이상 그리고 RMSEA와 SRMR도 자료에 적합한 모형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콘서트의 경우가 모형 적합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 모형의 경우 자료에 부합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분석 결과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형 수정지수를 이용한 결과이며 통합모형의 경우 자료를 설명하는 것에 실패하였으므로 모형의 재수립과 문항의 수정 또는 삭제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분석은 최종 분석결과가 아님으로 개별 요인 부하량 결과는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참고로 모든 모수추정치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3) 수정모형 요인 분석

이제까지의 모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모형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항을 검토 수정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 설문 검사를 재구성해 보았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감수성을 설명하는 두 요인에 근거한 문항이 해당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또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술통계분석과 문항 응답분포 결과, 그리고 신뢰도 결과에 있어 크게 문항의 수정 및 삭제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도 요인의 수가 이론에서 제시된 2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요인에 근거하여 개발한 문항이 다른 요인에 묶이거나 두 요인 모두에 부합하는 등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확인적 분석에서도 적합도 지수는 우수하나 측정변인의 오차 상관을 허용하는 등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통합적 분석 모형 즉 모든 딜레마 상황의 문항이 두 개의 잠재요인이 존재하는 2수준 요인구조 모형이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상황지각의 경우 1번과 5번이 일반적으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결과지각에서는 8번과 9번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지각에서 도덕적 판단을 나타내는 2번과 3번 문항이 요인 독립적이거나 결과지각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하위 요인이 상황지각의 특성을 가지기보다 결과지각의 특성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수정 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Ⅲ-3】 수정모형 요인 구조

해당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분석 모형의 적합도

	모형 적합도					
	chi-square	CFI	TLI	BIC	RMSEA	SRMR
과제	5.85	1.00	1.00	6048.97	.00	.02
콘서트	16.23*	.98	.96	5774.19	.05	.03
작품	7.08	1.00	1.00	5477.63	.01	.02
통합모형	80.22***	.96	.94	11782.97	.04	.04

참조: p < .001 ***; p < .01 **; p < .05 *

위 <표 Ⅲ-16>과 비교하여 모든 딜레마 상황에서 모형 적합도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 검사”와 “부서진 작품”의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까지 기각되지 않았으며 거의 완벽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모형의 결과에서도 제시된 모형 적합도 기준에 근거하였을 때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 모형의 모수 추정결과는 다음 <표 Ⅲ-17>과 같다.

표 III-17 최종 모형 모수추정치

	요인 경로	모수 추정치
과제	요인 1 → 문항 1	1.00(.65)
	요인 1 → 문항 5	.46(.30)**
	요인 2 → 문항 2	1.00(1.16)
	요인 2 → 문항 3	.93***(.95)
	요인 2 → 문항 8	.32**(.35)
	요인 2 → 문항 9	.30**(.39)
	요인 1 ⇔ 요인 2	.17***(.26)
콘서트	요인 1 → 문항 1	1.00(.38)
	요인 1 → 문항 5	1.40***(.70)
	요인 2 → 문항 2	1.00(.64)
	요인 2 → 문항 3	.85***(.39)
	요인 2 → 문항 8	.79***(.39)
	요인 2 → 문항 9	1.03***(.74)
	요인 1 ⇔ 요인 2	.18***(.32)
작품	요인 1 → 문항 1	1.00(.56)
	요인 1 → 문항 5	1.21***(.71)
	요인 2 → 문항 2	1.00(.57)
	요인 2 → 문항 3	.88***(.52)
	요인 2 → 문항 8	1.06***(.62)
	요인 2 → 문항 9	.81***(.37)
	요인 1 ⇔ 요인 2	.21***(.48)
딜레마 통합 2수준 요인구조 모형	2수준 상황지각요인 → “과제”상황지각요인	1.00(.70)
	2수준 상황지각요인 → “콘서트”상황지각요인	.78***(.71)
	2수준 상황지각요인 → “작품”상황지각요인	1.37***(.99)
	2수준 결과지각요인 → “과제”결과지각요인	1.00(.44)
	2수준 결과지각요인 → 콘서트”결과지각요인	.99***(.78)
	2수준 결과지각요인 → “작품”결과지각요인	1.57***(.97)
	2수준 상황지각요인 ⇔ 2수준 결과지각요인	.10***(.91)

참조: p < .001 ***; p < .01 **; p < .05 * 괄호는 표준화된 추정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제의 경우 요인부하량의 표준화된 추정값의 크기가 작은 등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로는 추후 문항 수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예비조사를 통한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수정

예비조사 문항 구성시 상황지각 문항으로 구성하였던 기존 문항 2, 3번은 분석결과에서 결과지각으로 요인이 더 묶이는 것을 볼 때, 수정문항에서는 기존 2, 3번의 문항을 결과지각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 1, 4, 5번의 문항을 확장시키는 관점에서 상황지각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자세한 문항 내용은 아래 <표 Ⅲ-18>, <표 Ⅲ-19>, <표 Ⅲ-20>과 같다. 수정문항의 구성은 1~6번까지 상황지각, 7~12번까지 결과지각에 해당한다.

1차 문항	예비조사 후 수정문항
1. 지원이는 친구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다면 수행 평가를 제출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1. 지원이는 짝의 과제를 베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2. 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다.	2. 지원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 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짝의 과제를 베껴 성적을 받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지원이는 공정한 경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4. 만일 내가 지원이라면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것 같다.	4. 지원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을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다.
5. 몸이 아파서 과제를 못한 지원이가 안타깝다.	5. 몸이 아파서 과제를 하지 못한 지원이가 안타깝다.
6. 지원이가 낮은 성적을 받게 될지라도, 친구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다.	6. 옳지 않은 방법으로 과제를 제출할지 고민하는 지원이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7.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7. 지원이가 짝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다.
8. 만일 지원이가 친구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했다가 발각되면 지원이의 행동은 비난받을 것이다.	8. 짝의 과제를 베껴 제출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9.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화를 낼 것이다.	9. 짝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 지원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10.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이 당장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지원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 짝의 과제를 베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다른 친구들이 기분나빠할 것이다.
	11. 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다.
	12. 짝의 과제를 베끼는 것은 부당한 행동이다.

표 III-19 딜레마 2번 1차 문항과 수정문항

1차 문항	예비조사 후 수정문항
1. 할머니를 돕게 된다면 현민이는 콘서트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1. 현민이는 할머니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2. 사고를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일이다.	2. 현민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친구뿐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현민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고 콘서트에 가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일이다.	3. 현민이는 남을 돕는 일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4. 내가 할머니라면 누구라도 와서 도움을 주기를 바랄 것이다.	4. 현민이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초조해 하고 있다.
5.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5.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할머니가 안타깝다.
6. 현민이가 콘서트에 가지 못하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행동이다.	6.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도와줄지 갈등하는 현민이를 생각하면 서글퍼진다.
7. 현민이가 콘서트에 간다면 할머니의 생명이 위급할 수 있다.	7.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느라고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가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은 이해할 것이다.
8. 할머니를 돕지 않고 콘서트에 간 사실이 알려진다면 현민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8.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지 않는다면 할머니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9. 가고 싶은 콘서트에 가지 않고 할머니를 돕는다면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족들은 현민이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9. 할머니를 돕지 않고 약속장소에 간 사실이 알려진다면 현민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10. 콘서트에 가지 않고 할머니를 돕는 것이 당장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10.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는다면 할머니는 고마워할 것이다.
	11. 현민이가 할머니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12. 현민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행동이다.

표 III-20 딜레마 3번 1차 문항과 수정문항

1차 문항	예비조사 후 수정문항
1. 윤서는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1. 윤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2.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2. 윤서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 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윤서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3. 윤서는 정직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4. 윤서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4. 윤서는 자기로 인해 오해받고 있는 친구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다.
5. 만일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불쾌하고 속상할 것이다.	5.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친구가 불쌍하다.
6. 윤서가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친구는 그동안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6.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아 친구를 비난받게 만든 윤서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7.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윤서의 친구는 반 아이들에게 나쁜 아이로 낙인찍힐 것이다.	7. 윤서가 사실을 고백하면 친구를 비난하던 반 아이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다.
8. 만일 윤서가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윤서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8.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윤서의 친구는 반 아이들에게 나쁜 아이로 낙인찍힐 것이다.
9. 만일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오해받던 친구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9.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윤서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10. 윤서가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당장은 비난을 면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오해받던 친구는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11.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12. 윤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직한 행동이다.

5)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문항 수정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딜레마의 내용과 문항 수, 문항내용 등을 일부 조정하였다.

(1) 스토리의 수정

예비조사에서는 세 개의 실생활 딜레마를 활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딜레마가 갈등상황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규범적 관점의 문제 상황으로서 제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러한 딜레마 성격으로 인해 응답자가 옳은 답으로 반응하는 편파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콘서트를 가다가’의 딜레마에서 이러한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 스토리 수정이 필요하였다. ‘콘서트를 가다가’의 딜레마 내용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 다른 딜레마에 비해 가치 갈등의 성격이 약하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청소년들이 콘서트를 가기 어려워 응답자간의 지역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응답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도덕적 감수성의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갈등구조를 강화하고 지역적 차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스토리를 개발하였다. 딜레마의 내용 가운데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콘서트 가기를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 약속장소에 가는 것으로 수정하고 교통사고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할머니가 길을 잃어 헤메고 있는 상황으로 수정하였다. ‘콘서트를 가다가 개인선호 대 생명존중의 갈등상황을 다루고 있다면, 새롭게 수정된 딜레마는 놀이동산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친구와 길을 잃고 헤메는 할머니 중 누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반응할 것인가의 친사회적 가치에 관한 갈등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2) 검사문항의 수정

예비조사의 통계적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각 하위구성요소에 보다 적절한 문항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따라서 딜레마별로 상황지각에는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1문항, 도덕적 갈등 이유 지각 2문항,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3문항이 구성되었고, 결과지각에는 행위 결과 지각 3문항,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지각과 예견한 결과에 대한 타인의 감정 공감 각 2문항씩이 구성되어 최종 3개 딜레마 36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수정 내용은 <표 III-23>, <표 III-24>, <표 III-25>에 제시되어져 있다.

4. 본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목적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확정을 위한 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조사이다.

조사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도덕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인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 수준 파악

둘째, 청소년 인성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도덕성 지표 산출

2) 조사대상

2012년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의 모집단은 현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정의하였으나 조사모집단은 표본틀로 활용가능한 교육통계가 2011년 4월 기준이므로 2011년 4월 기준의 전국 중학생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설계를 살펴보면,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 16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21>의 지역별 예상표본 및 조사대상 학교수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중 2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학급당 25명 학생수로 나누면 조사대상 학교수가 할당되어 총 200개 학교가 조사되었다.

표 III-21 지역별 예상표본 및 조사대상 학교 수

구분	표 본 수	조사진행 학교수
서울	865	34
부산	316	12
대구	270	11
인천	283	11
광주	181	7
대전	167	7
울산	130	5
경기	1237	49
강원	150	6
충북	161	6
충남	203	8
전북	193	8
전남	187	8
경북	249	11
경남	342	14
제주	65	3
합계	5000	200

연구목적에 따라 시군이 구분되는 지역의 경우 군단위에서도 표집되도록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중학교의 경우 조사모집단의 범위를 일반중학교(국제중, 예술중, 체육중 제외)로 제한하였다.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지역별 예상 표본 및 조사대상 학교수>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즉, 지역구분 16개 층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2학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지역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다.

최종적으로 본조사에 참여한 중학생은 6,216명이었는데, 이는 예상 표본수보다 20% 정도 많은 수이다.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예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수정한 3개의 딜레마와 연습용 딜레마를 제시하고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은 각 딜레마별 1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도덕적 감수성은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이며, 도덕적 판단력은 문용린 등(2008)이 한국판 청소년 DIT로 표준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III-22 도덕적 감수성 본조사 문항 구성

구분	본조사		
	구성 요인	하위구성요인	문항수
상황 지각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3
		도덕적 갈등 이유 지각	6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9
결과 지각		행위 결과 지각	6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지각	6
		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	6

〈과제 검사〉

오늘은 지원이가 중요한 도덕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다. 이 과제는 환경윤리 문제에 대한 것인데, 지원이는 그동안 몸이 아파서 과제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퇴시간이고, 도덕 시간은 5교시이다.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 과제는 나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내가 친구의 과제를 베낀 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번 과제는 점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원이가 과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마침 지원이의 짝은 과제를 다 해왔다. 게다가 짝은 지원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일인 양 자기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만약 내가 지원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상황지각	<p>도덕적 이슈(갈등)지각</p> <p>지원이는 짝의 과제를 베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p>
	<p>도덕적 갈등 이유 (관련 가치) 지각</p> <p>지원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 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p> <p>지원이는 공정한 경쟁문제로 고민하고 있다.</p>
	<p>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p> <p>지원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을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다.</p> <p>몸이 아파서 과제를 하지 못한 지원이가 안타깝다.</p> <p>옳지 않은 방법으로 과제를 제출할지 고민하는 지원이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p>
행위 결과 지각	<p>지원이가 짝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다.</p> <p>짝의 과제를 베껴 제출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p>
결과지각	<p>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p> <p>짝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 지원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p> <p>짝의 과제를 베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다른 친구들이 기분나빠할 것이다.</p>
	<p>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 지각</p> <p>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다.</p> <p>짝의 과제를 베끼는 것은 부당한 행동이다.</p>

〈놀이공원에 가다가〉

현민이는 오늘 아침부터 매우 들떠 있었다. 오늘은 손꼽아 기다리던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날이다. 친구들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둘러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할머니는 길을 물었고 그 장소는 현민이가 잘 아는 곳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되면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다. 현민이를 제외하고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늘따라 서둘러 나오느라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민이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만약 내가 현민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현민이는 할머니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상황지각	도덕적 갈등 이유 (관련 가치) 지각 현민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친구뿐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민이는 남을 돕는 일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현민이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초조해 하고 있다.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할머니가 안타깝다.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느라고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가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은 이해할 것이다.
행위 결과 지각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느라고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가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은 이해할 것이다.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지 않는다면 할머니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	할머니를 돕지 않고 약속장소에 간 사실이 알려진다면 현민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는다면 할머니는 고마워할 것이다.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 지각	현민이가 할머니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현민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행동이다.

표 III-25 도덕적 감수성 세 번째 딜레마 수정문항

〈부서진 작품〉

윤서는 같은 반 친구가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친구는 축제 기간 동안 반 친구 전체가 공들여 만든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그 친구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려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윤서 자신이었다. 윤서는 자신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한다면 윤서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윤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윤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상황지각	도덕적 갈등 이유 (관련 가치) 지각 윤서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서는 정직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윤서는 자기로 인해 오해받고 있는 친구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친구가 불쌍하다.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아 친구를 비난받게 만든 윤서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행위 결과 지각 윤서가 사실을 고백하면 친구를 비난하던 반 아이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다.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윤서의 친구는 반 아이들에게 나쁜 아이로 낙인찍힐 것이다.
결과지각	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윤서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오해받던 친구는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 지각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윤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직한 행동이다.

4) 조사방법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 전에 표본설계에 따른 표본배분 및 원표본, 대체표본 학교 목록을 연구진이 결정하여 조사전문기관에 제시하였다. 조사전문기관은 전국에서 조사원을 선발하여 권역별로 교육·관리하고, 조사원은 추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5) 조사기간

2012년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6) 분석 방법

측정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과 신뢰도 분석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SPSS 19.0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Mplus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확인분석에서는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고유값(eigen value), 누적 분산비율, scree plot 등에 기초한 결과와 더불어 구조방정식에서 제공하는 모형 적합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확인적 분석방법의 경우 이론적 배경, 1차년도 분석결과, 그리고 본 자료의 변인 간 상관분석결과²⁾에 기초하여 구인 간 상관이 존재하는 모형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 구성 이후에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2) 부록 1에 제시.

제 4 장

분석결과

1. 본 조사 문항의 기술통계와
응답빈도 분석
2. 본조사 신뢰도 분석
3. 본조사 요인 분석
4. 본조사 결과 타당도 점검
5.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최종문항

제 4 장 분석결과

1. 본조사 문항의 기술통계와 응답 빈도 분석

본 결과는 문항의 일반적인 응답 수준을 확인하고 추후 문항 수정과 관련하여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Likert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와 문항 응답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1>, <표 IV-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술통계 결과에 따르면 과제 관련 문항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의 평균값이 5.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문항3(4.46), 문항5(4.77), 문항6(3.83), 문항7(4.56)의 경우 다소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콘서트 관련 문항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의 평균값이 5.0점 이상이나 문항6(4.91)의 평균값은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관한 문항의 경우 역시 대부분의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5.0점 이상이었으나, 문항6(4.36), 문항7(4.94), 문항9(4.50)으로 다소 낮은 평균값이 산출되었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지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지각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특히, “콘서트를 가다” 관련 전체 문항은 5.50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서진 작품” 관련 전체 문항은 5.32점 그리고 “과제 검사” 관련 문항 전체의 평균값이 5.04점이었으며 대부분의 문항이 평균값이 5.0점 이상이었다. 표준 편차 결과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표준 편차의 평균값은 1.57점이었다. 6,216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편차가 이렇게 작은 것은 응답에 대한 분포가 특정 값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왜도와 첨도값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문항의 왜도값이 부적인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이 응답에 대한 결과가 5점과 6점 척도에 상대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첨도의 경우에도 그 값이 정적인 문항이 대부분인데 분포의 높이가 기준 정규분포의 예상빈도(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참여자의 응답이 특정 척도(예를 들어, 5점과 6점)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도덕적 감수성이 높으며 응답의 분포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측정치에 치우쳐 있다.

표 IV-1 각 문항 별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과제 문항1	5.58	1.57	-1.04	0.51
문항2	5.57	1.53	-1.04	0.46
문항3	4.46	1.81	-0.30	-0.83
문항4	5.08	1.57	-0.66	-0.14
문항5	4.77	1.79	-0.51	-0.62
문항6	3.83	1.76	0.10	-0.80
문항7	4.56	1.85	-0.37	-0.82
문항8	5.24	1.57	-0.73	-0.08
문항9	5.22	1.57	-0.71	-0.12
문항10	5.29	1.59	-0.79	-0.03
문항11	5.47	1.53	-0.91	0.24
문항12	5.41	1.54	-0.85	0.11
콘서트 문항1	5.85	1.45	-1.26	1.11
문항2	5.30	1.71	-0.92	0.04
문항3	5.56	1.49	-0.95	0.32
문항4	5.92	1.35	-1.31	1.29
문항5	5.56	1.57	-1.11	0.64
문항6	4.91	1.63	-0.50	-0.41
문항7	5.30	1.63	-0.81	-0.12
문항8	5.26	1.65	-0.82	-0.08
문항9	5.70	1.52	-1.13	0.59
문항10	5.23	1.68	-0.75	-0.26
문항11	5.55	1.46	-0.92	0.34
문항12	5.88	1.42	-1.35	1.36
작품 문항1	5.66	1.51	-1.09	0.68
문항2	5.64	1.47	-1.12	0.80
문항3	5.48	1.47	-0.90	0.34
문항4	5.64	1.40	-1.01	0.61
문항5	5.45	1.49	-0.92	0.33
문항6	4.36	1.73	-0.24	-0.70
문항7	4.94	1.70	-0.53	-0.56
문항8	5.23	1.58	-0.73	-0.13
문항9	4.50	1.75	-0.33	-0.71
문항10	6.06	1.35	-1.57	2.04
문항11	5.42	1.46	-0.86	0.35
문항12	5.40	1.45	-0.79	0.25

개별 딜레마 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면 “놀이동산에 가다가”와 “부서진 작품”의 기술통계 결과가 매우 비슷하며 “과제 검사”에 있어 감수성에 대한 상황인지와 결과인지가 다른 두 딜레마 경우보다 인식 정도가 다소 낮으며 분포 또한 치우친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통계 결과임으로 딜레마 간 문항 요인구조의 타당성은 추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두 개의 하위 구인에 대한 문항 결과를 확인해 보면, 딜레마 별 1번에서 6번의 결과(상황인지) 및 7번에서부터 12번 문항 결과(결과인지)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특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딜레마 상황에 따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여자의 응답이 감수성의 하위 구인에 의거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반응 분포 결과이다. 먼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IV-2>와 같이 약 70% 이상의 참여자 응답이 긍정적인 척도(5점 ~ 7점 척도)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가 인식하는 각 문항에 대한 개별 딜레마가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인지나 결과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과제 검사”에서 유독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과제 검사” 6번의 경우 응답에 대해 부정적이고 중간 응답이 약 60%에 가까워 다른 문항들의 응답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딜레마 상황의 문항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콘서트를 가다”와 “부서진 작품”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약 80%에 가까운 문항이 거의 대부분 이었다. 응답분포 결과에 있어서도 기술통계와 비슷하게 감수성의 요인구조별로 유사성보다는 딜레마상황 별 동일성이 더 큰 경향이 있었다.

표 IV-2 각 문항별 응답 반응 분포

문항 \ 응답	1	2	3	4	5	6	7
과제 문항1	186(3.0)	128(2.1)	295(4.7)	858(13.8)	1,091(17.6)	1,162(18.7)	2,495(40.1)
문항2	144(2.3)	167(2.7)	344(5.5)	774(12.5)	1,025(16.5)	1,461(23.5)	2,300(37.0)
문항3	539(8.7)	449(7.2)	804(12.9)	1,295(20.8)	1,108(17.8)	1,002(16.1)	1,019(16.4)
문항4	204(3.3)	249(4.0)	483(7.8)	1,133(18.2)	1,384(22.3)	1,398(22.5)	1,364(21.9)
문항5	430(6.9)	365(5.9)	590(9.5)	1,179(19.0)	1,232(19.8)	1,084(17.4)	1,336(21.5)
문항6	774(12.5)	740(11.9)	1,088(17.5)	1,532(24.6)	908(14.6)	598(9.6)	574(9.2)
문항7	553(8.9)	428(6.9)	678(10.9)	1,262(20.3)	1,102(17.7)	1,008(16.2)	1,185(19.1)
문항8	176(2.8)	195(3.1)	459(7.4)	1,046(16.8)	1,276(20.5)	1,362(21.9)	1,702(27.4)
문항9	169(2.7)	219(3.5)	464(7.5)	1,046(16.8)	1,321(21.3)	1,350(21.7)	1,647(26.5)
문항10	189(3.0)	194(3.1)	439(7.1)	1,013(16.3)	1,178(19.0)	1,399(22.5)	1,804(29.0)
문항11	144(2.3)	160(2.6)	376(6.0)	879(14.1)	1,170(18.8)	1,395(22.4)	2,091(33.6)
문항12	144(2.3)	185(3.0)	376(6.0)	951(15.3)	1,167(18.8)	1,390(22.4)	2,001(32.2)
놀이동산 문항1	119(1.9)	85(1.4)	219(3.5)	734(11.8)	940(15.1)	1,081(17.4)	3,038(48.9)
문항2	305(4.9)	231(3.7)	377(6.1)	854(13.7)	1,070(17.2)	1,352(21.8)	2,026(32.6)
문항3	115(1.9)	136(2.2)	368(5.9)	838(13.5)	1,088(17.5)	1,442(23.2)	2,228(35.8)
문항4	68(1.1)	79(1.3)	251(4.0)	584(9.4)	891(14.3)	1,368(22.0)	2,975(47.9)
문항5	192(3.1)	160(2.6)	303(4.9)	746(12.0)	1,056(17.0)	1,409(22.7)	2,350(37.8)
문항6	244(3.9)	286(4.6)	592(9.5)	1,295(20.8)	1,365(22.0)	1,126(18.1)	1,308(21.0)
문항7	192(3.1)	244(3.9)	476(7.7)	877(14.1)	1,156(18.6)	1,341(21.6)	1,929(31.0)
문항8	236(3.8)	232(3.7)	449(7.2)	945(15.2)	1,097(17.6)	1,400(22.5)	1,856(29.9)
문항9	117(1.9)	158(2.5)	324(5.2)	728(11.7)	898(14.4)	1,316(21.2)	2,675(43.0)
문항10	217(3.5)	293(4.7)	473(7.6)	934(15.0)	1,168(18.8)	1,239(19.9)	1,890(30.4)

문항11	101(1.6)	153(2.5)	302(4.9)	886(14.3)	1,178(19.0)	1,442(23.2)	2,152(34.6)
문항12	94(1.5)	118(1.9)	246(4.0)	574(9.2)	875(14.1)	1,354(21.8)	2,955(47.5)
작품 문항1	149(2.4)	117(1.9)	258(4.2)	818(13.2)	1,097(17.6)	1,177(18.9)	2,598(41.8)
문항2	130(2.1)	125(2.0)	287(4.6)	745(12.0)	1,059(17.0)	1,541(24.8)	2,329(37.5)
문항3	119(1.9)	139(2.2)	377(6.1)	823(13.2)	1,288(20.7)	1,489(24.0)	1,979(31.8)
문항4	85(1.4)	108(1.7)	293(4.7)	789(12.7)	1,137(18.3)	1,607(25.9)	2,196(35.3)
문항5	134(2.2)	155(2.5)	368(5.9)	851(13.7)	1,240(19.9)	1,522(24.5)	1,946(31.3)
문항6	510(8.2)	463(7.4)	810(13.0)	1,478(23.8)	1,257(20.2)	857(13.8)	841(13.5)
문항7	258(4.2)	334(5.4)	652(10.5)	1,133(18.2)	1,160(18.7)	1,233(19.8)	1,446(23.3)
문항8	171(2.8)	222(3.6)	483(7.8)	1,012(16.3)	1,251(20.1)	1,415(22.8)	1,662(26.7)
문항9	465(7.5)	458(7.4)	714(11.5)	1,365(22.0)	1,262(20.3)	997(16.0)	955(15.4)
문항10	76(1.2)	88(1.4)	198(3.2)	547(8.8)	651(10.5)	1,203(19.4)	3,453(55.6)
문항11	126(2.0)	138(2.2)	345(5.6)	934(15.0)	1,303(21.0)	1,564(25.2)	1,804(29.0)
문항12	114(1.8)	142(2.3)	346(5.6)	989(15.9)	1,358(21.8)	1,516(24.4)	1,746(28.1)

2. 본조사 신뢰도 분석

딜레마 상황에 관한 문항들이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문항	딜레마 내 하위구인 신뢰도	딜레마 내 하위구인 문항 삭제시 신뢰도	딜레마 내 신뢰도	딜레마 내 문항 삭제시 신뢰도	딜레마 전체 신뢰도	딜레마 전체 문항 삭제시 신뢰도	
과제 문항1	.655	.607	.819	.811	.924	.923	
문항2		.604		.806		.922	
문항3		.590		.812		.924	
문항4		.582		.806		.922	
문항5		.611		.816		.924	
문항6		.675		.819		.925	
문항7		.803		.832		.815	.925
문항8				.763		.798	.922
문항9				.758		.797	.922
문항10				.760		.798	.922
문항11				.752		.795	.921
문항12				.763		.799	.922
놀이동산 문항1	.769	.727	.859	.847	.924	.922	
문항2		.754		.856		.923	
문항3		.717		.845		.921	
문항4		.706		.840		.921	
문항5		.730		.847		.922	
문항6		.776		.855		.923	
문항7	.771	.742	.850	.922			
문항8		.754	.853	.923			
문항9		.735	.847	.922			
문항10		.757	.855	.923			
문항11		.718	.843	.921			
문항12		.721	.842	.921			
작품 문항1	.776	.734	.856	.845	.924	.922	
문항2		.735		.843		.922	
문항3		.726		.842		.922	
문항4		.733		.844		.922	
문항5		.730		.838		.921	

문항6		.797		.855		.924
문항7	.778	.759		.850		.923
문항8		.722		.839		.922
문항9		.771		.854		.924
문항10		.755		.843		.921
문항11		.722		.839		.922
문항12		.740		.841		.921

개별 딜레마 내에서 상황지각 요인과 결과지각 요인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면 “과제 검사”의 상황지각 관련 문항의 신뢰도 .66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 6번을 삭제한 후 변화된 신뢰도(Cronbach's α)가 .675로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신뢰도 .655와 비슷하여 문항 제거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뢰도가 낮은 요인은 “부서진 작품”에서 결과 지각 관련 문항 신뢰도인데, 상황지각 관련 문항 6번을 삭제할 경우 .797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신뢰도 .776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문항 삭제의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과제 검사”의 상황지각 문항을 제외한 그 외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70 이상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얻었기 때문에 문항 응답의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딜레마 내 신뢰도에 있어서도 .819부터 .859 사이의 값을 얻어 전반적으로 신뢰가 있다고 판단된다. 딜레마 상황 각각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과제 검사”의 경우 .819, “콘서트를 가다”의 경우 .859, “부서진 작품”은 .856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36문항의 신뢰도는 .924이었다. 일반적으로 문항의 수가 증가하면 Cronbach's α 도 증가하기 때문에 딜레마 내 하위구인(각 6문항)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신뢰도 분석에서는 .60 미만의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문항 삭제 시 신뢰도가 보정되는 문항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문항 수정 및 삭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생각된다.

3. 본조사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의 결과는 요인의 수 및 문항과 요인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이론에 근거하여 수립된 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탐색적 및 확인적 결과에 기초한 수정된 모형을 수립하는 분석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한다.

1) 탐색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최대우도추정방법과 사교회전(oblique rotation)을 사용하였다. <표 IV-4>는 SPSS 19.0를 이용하여 얻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며 고유값이 1 이상과 추가 설명분량에 근거하여 적절한 요인의 수를 판별하였다.

표 IV-4 총 분산에 근거한 요인분석 결과

딜레마	요인 수	초기 고유값		
		합계	%분산	%누적
과제	1	4.222	35.187	35.187
	2	1.281	10.674	45.861
	3	1.170	9.750	55.611
놀이동산	1	4.872	40.601	40.601
	2	1.045	8.711	49.311
	3	0.841	7.004	56.315
작품	1	4.786	39.884	39.884
	2	1.340	11.163	51.046
	3	0.913	7.606	58.653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별 총 분산에 근거한 요인수 결과 <표 IV-4>에 의하면 “과제 검사”의 경우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3개이었으며, “놀이동산에 가다가”와 “부서진 작품”의 경우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수는 2개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누적 분산이 10%로 미만인 결과는 3개의 요인을 갖고 있어도 결국 요인의 수는 2개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요인 구조행렬 결과는 각 요인 부하량 및 구조행렬에 표준편차를 제공하여 통계적 유의미 정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우선 “과제 검사” 경우 딜레마 상황에서는 요인 1에 문항 6번, 요인 2에 문항 7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항들이 모두 하나의 요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 검사”의 구성에서 문항의 분류는 1-5번까지가 상황지각, 8-12번이 결과지각임을 감안할 때, 요인분석 문항 6번과 문항 7번의 결과가 이론에 부합하지는 않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서트를 가다”에서는 요인 1에 문항 6번을 제외한 각 문항, 요인 2에서는

10번이 각 요인에 부합되는 정도가 다소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12번 문항은 두 요인 모두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서진 작품”에서는 요인 1에 문항 6번과 10번, 그리고 12번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이 각 요인에 잘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총 분산에 근거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과제 검사		놀이동산		부서진 작품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문항 1	.368	.542	.490	-.689	.673	.353
문항 2	.446	.550	.370	-.516	.657	.400
문항 3	.313	.552	.528	-.713	.696	.417
문항 4	.402	.600	.643	-.758	.682	.369
문항 5	.289	.476	.574	-.542	.596	.579
문항 6	.331	.277	.519	-.333	.295	.468
문항 7	.366	.349	.597	-.420	.318	.595
문항 8	.653	.452	.524	-.395	.471	.711
문항 9	.705	.438	.580	-.539	.276	.555
문항 10	.702	.427	.503	-.371	.629	.477
문항 11	.765	.467	.702	-.559	.541	.645
문항 12	.704	.425	.680	-.622	.570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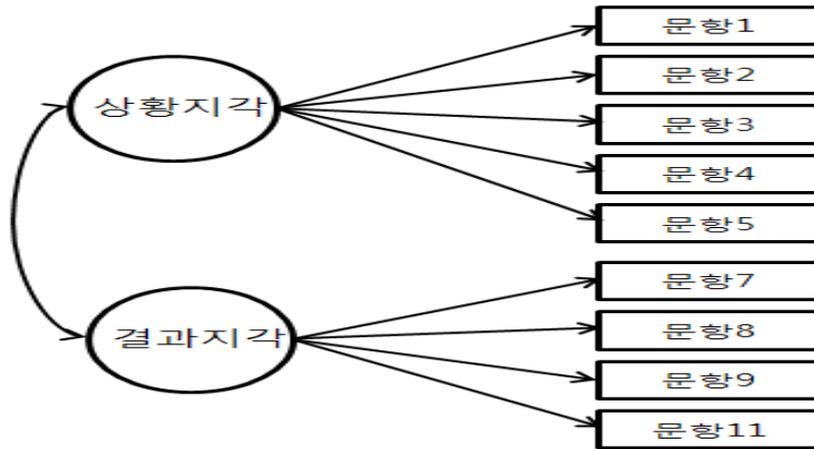
screen plot			
-------------	--	--	--

참조: $p < .001^{***}$; $p < .0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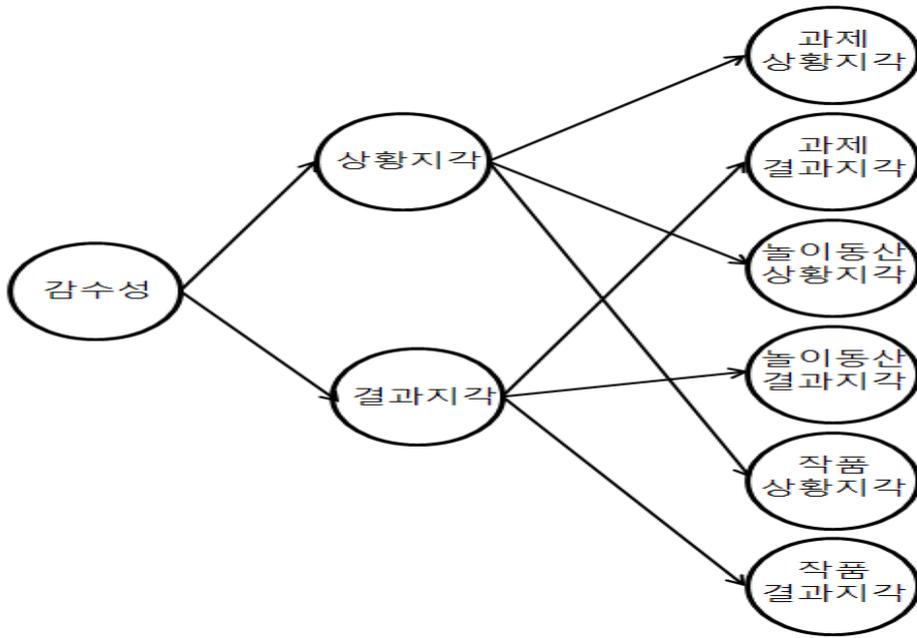
위 결과를 종합하면 도덕적 감수성은 두 요인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각 요인별 상황지각 문항 6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다만, 결과지각의 경우 10번과 12번 문항이 두 딜레마에서 그리고 7번은 하나의 딜레마에서 요인의 일차원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항임이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근거와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판단해 보았을 때 문항 6번, 10번, 그리고 12번이 딜레마 상황별로 상황지각요인에 또는 결과지각요인에 속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상황지각에서는 1-5번 문항이 결과지각에서는 7, 8, 9, 11번 문항이 각 구인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결과는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었다. 구조모형은 [그림 IV-1]와 [그림 IV-2]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IV-6>과 같다.



【그림 IV-1】 도덕적 감수성 확인적 분석 모형



【그림 IV-2】 딜레마 통합적 3수준 요인구조 모형

표 IV-6 총 분산에 근거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chi-square	CFI	TLI	RMSEA	SRMR
과제	474.25***	.94	.92	.053	.033
놀이동산	379.60***	.96	.95	.047	.027
작품	536.14***	.95	.93	.056	.040
통합모형	3387.83***	.92	.91	.039	.038

참조: p < .001*** ; p < .01** ; p < .05*

위 표에서 보듯이 개별 스토리 상황에서 도덕적 감수성의 상황 및 결과지각 요인으로 구성된 이론 모형이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예, Hu & Bentler, 1999)에 근거하였을 때 자료를 매우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요인별 부하량도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

	1.0과제			놀이동산			작품			전체		
상황 지각	#1	1.0								#1	1.0	
	#2	1.0								#2	1.0	
	#3	1.0								#3	.8	
	#4	.9								#4	.9	
	#5	.9								#5	.8	
결과 지각			#7	1.0						#7	1.0	
			#8	1.4						#8	1.5	
			#9	1.5						#9	1.5	
			#11	1.4						#11	1.5	
상황 지각					#13	1.0				#13	1.0	
					#14	.9				#14	.9	
					#15	1.1				#15	1.1	
					#16	1.1				#16	1.1	
					#17	1.0				#17	.9	
결과 지각						#19	1.0			#19	1.0	
						#20	1.0			#20	1.0	
						#21	1.1			#21	1.1	
						#23	1.1			#23	1.1	
상황 지각								#25	1.0	#25	1.0	
								#26	1.0	#26	1.0	
								#27	1.1	#27	1.0	
								#28	.9	#28	.9	
								#29	.9	#29	.9	
결과 지각									#31	1.0	#31	1.0
									#32	1.2	#32	1.2
									#33	1.0	#33	1.0
									#35	1.0	#35	1.0

마지막으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간의 상관은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과제의 경우 .48, 놀이동산에 가다에서는 .86, 그리고 부서진 작품의 경우 .68이었으며 전체 모형에서는 .96으로 매우 높았다.

도덕적 감수성의 전체 신뢰도는 .91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상황지각 .87, 결과지각 .81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딜레마별,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도덕적 감수성 딜레마별 신뢰도

딜레마	구인	스토리 내	스토리 간	전체
과제	상황지각	.68	.87	.91
	결과지각	.70	.81	
놀이동산	상황지각	.78	.87	
	결과지각	.70	.81	
작품	상황지각	.80	.87	
	결과지각	.72	.81	

4. 본조사 결과 타당도 점검

1) 도덕적 판단력의 기술 통계

다음으로 척도개발을 위한 도덕적 감수성 문항과 함께 조사한 도덕적 판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평균점수(P점수)는 36.86점이다. 2011년 청소년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적용연구(이인재 외, 2011)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137명의 예비조사 결과 도덕적 판단력은 평균 42.87점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중학생 71명의 평균은 36.1점을 보였다.

표 IV-9 도덕적 판단력 기술통계

구분	표본수	평균	중위수	최빈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전체	N=5,797	36.86	36.67	43.33	16.51	.13	-.38	
성별	남자	n1=2,731	35.97	36.67	30.00	16.71	.15	-.44
	여자	n2=3,066	37.66	36.67	43.33	16.29	.11	-.32
지역	서울	n=923	36.27	33.33	33.33	16.24	.27	-.20
	부산	n=360	34.82	33.33	26.67	15.77	.19	-.51
	대구	n=320	37.33	36.67	40.00	16.48	.15	-.20
	인천	n=345	35.77	36.67	40.00	16.64	.02	.26
	광주	n=187	37.93	40.00	43.33	16.59	.01	-.53
	대전	n=251	38.61	40.00	43.33	17.27	-.01	-.37

	울산	n=174	34.29	33.33	23.33	16.08	.10	.18
	경기	n=1,336	37.36	36.67	30.00	16.91	.14	-.35
	강원	n=176	36.57	36.67	43.33	16.72	.04	-.60
	충북	n=250	38.24	40.00	30.00	15.29	-.04	-.42
	충남	n=210	35.17	33.33	43.33	16.06	.25	-.36
	전북	n=289	38.43	40.00	43.33	16.64	.08	.29
	전남	n=206	33.98	33.33	43.33	16.05	.21	-.20
	경북	n=252	36.90	36.67	30.00	16.71	.04	-.50
	경남	n=419	38.78	40.00	46.67	16.39	.03	-.51
	제주	n=99	37.41	36.67	26.67	16.60	.05	-.40
학업 성적	상	n=1,758	37.82	36.67	43.33	16.60	.11	-.26
	중	n=2,409	37.02	36.67	43.33	16.52	.09	-.45
	하	n=1,614	35.60	36.67	30.00	16.30	.19	-.38
	기타	n=16	36.67	33.33	26.67	19.55	.44	-.85
가정 형편	상	n=2,307	37.24	36.67	43.33	16.75	.17	-.34
	중	n=2,536	36.58	36.67	40.00	16.31	.07	-.42
	하	n=935	36.70	36.67	43.33	16.41	.15	-.39
	기타	n=19	37.19	36.67	36.67	18.37	.32	-1.13
가족 형태	양부모	n=4,651	37.13	36.67	43.33	16.34	.12	-.37
	편부모외	n=1,103	35.97	36.67	36.67	16.67	.15	-.41
	기타	n=43	31.63	33.33	33.33	16.37	.18	-.71

올해 도덕적 판단력 조사에서는 위 표에서 보듯이 성별의 경우 여자의 도덕적 판단력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 도덕적 감수성 요인 관계

본 연구에서는 Rest(1983)가 제시하였던 판단력과 감수성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Rest(1983)은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심리적 변인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감수성의 요인과 판단력과의 상관은 매우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검사 결과에 기초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다음과 같다. 해당 결과는 [그림 IV-2]에 근거한 이론모형에서 도덕적 감수성의 두 하위요인과 판단력 결과와의 상관을 추정된 것으로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스토리상황에서의 감수성과 판단력 관계는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두 하위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합쳐진 2수준 모형으로 검증을 하였다. 전체분석의 경우에는 하위요인의 스토리별 구인을 검증한 모형에 전체 감수성 요인을 다시 설정하였기 때문에 3수준 모형에 근거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과제를 베끼다” 딜레마 상황에서의 감수성 상황지각과 판단력의 상관은 .032이었고 결과지각 하위요인과 판단력과는 .043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감수성요인과의 상관도 .045이었다. 모두 .10 미만의 매우 약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놀이동산을 가다”와 “부서진 작품”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개발된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과의 상관은 .069 정도로 나왔으며,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인인 상황지각과 결과지각과의 상관은 .073과 .062이었다. 이들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이는 본 분석의 표본 수가 약 6,00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표본 오차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도덕적 감수성과 판단력의 공통 분산은 .001 ~ .008% 정도로 그 관계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보면,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인임을 상정한 이론적 전제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0 도덕적 판단력과 감수성 요인 관계분석

구분		판단력
과제	상황지각	.473(.032)***
	결과지각	.520(.043)**
	감수성	.473(.045)*
놀이동산	상황지각	1.343(.089)***
	결과지각	.953(.066)***
	감수성	1.342(.083)***
작품	상황지각	.804(.050)***
	결과지각	.426(.027)**
	감수성	.804(.045)**
전체	상황지각	.913(.073)***
	결과지각	.528(.062)***
	감수성	.914(.069)***

*** < .001; ** < .01; * < .05.

추정치는 공분산 값이며 괄호는 상관계수

5.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최종문항

연구결과를 종합한 최종 문항은 딜레마별 상황지각 5문항, 결과지각 4문항 총 9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딜레마별로 상황지각에는 도덕적 이슈 지각 1문항, 도덕적 갈등 이유 2문항, 상황에 대한 감정 2문항이며, 결과지각에는 행위결과지각 2문항,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지각 1문항, 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 1문항이다. 세부 문항은 〈표 IV-11〉, 〈표 IV-12〉, 〈표 IV-13〉에 제시 되어져 있다.

〈과제 검사〉

오늘은 지원이가 중요한 도덕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다. 이 과제는 환경윤리 문제에 대한 것인데, 지원이는 그동안 몸이 아파서 과제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도덕 시간은 5교시이다.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 과제는 나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내가 친구의 과제를 베낀 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번 과제는 점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원이가 과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마침 지원이의 짝은 과제를 다 해왔다. 게다가 짝은 지원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일인 양 자기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만약 내가 지원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상황지각	<p>도덕적 이슈(갈등)지각</p> <p>지원이는 짝의 과제를 베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p>
	<p>도덕적 갈등 이유 (관련 가치) 지각</p> <p>지원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 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p> <p>지원이는 공정한 경쟁문제로 고민하고 있다.</p>
	<p>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p> <p>지원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을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다.</p> <p>몸이 아파서 과제를 하지 못한 지원이가 안타깝다.</p>
결과지각	<p>행위 결과 지각</p> <p>지원이가 짝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다.</p> <p>짝의 과제를 베껴 제출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p>
	<p>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p> <p>짝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 지원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p>
	<p>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 지각</p> <p>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다.</p>

표 IV-12 도덕적 감수성 두 번째 딜레마 최종문항

〈놀이공원에 가다가〉

현민이는 오늘 아침부터 매우 들떠 있었다. 오늘은 손꼽아 기다리던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날이다. 친구들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둘러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할머니는 길을 물었고 그 장소는 현민이가 잘 아는 곳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되면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다. 현민이를 제외하고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늘따라 서둘러 나오느라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민이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만약 내가 현민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상황지각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현민이는 할머니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도덕적 갈등 이유 (관련 가치) 지각	현민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친구뿐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민이는 남을 돕는 일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현민이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초조해 하고 있다.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할머니가 안타깝다.		
결과지각	행위 결과 지각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느라고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가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은 이해할 것이다.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지 않는다면 할머니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	할머니를 돕지 않고 약속장소에 간 사실이 알려진다면 현민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 지각	현민이가 할머니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부서진 작품〉

윤서는 같은 반 친구가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친구는 축제 기간 동안 반 친구 전체가 공들여 만든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그 친구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려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윤서 자신이었다. 윤서는 자신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한다면 윤서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윤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구성요소	문항
도덕적 이슈(갈등)지각	윤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상황지각	도덕적 갈등 이유 (관련 가치) 지각 윤서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서는 정직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윤서는 자기로 인해 오해받고 있는 친구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친구가 불쌍하다.
결과지각	행위 결과 지각 윤서가 사실을 고백하면 친구를 비난하던 반 아이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다.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윤서의 친구는 반 아이들에게 나쁜 아이로 낙인찍힐 것이다.
	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윤서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 지각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제 5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제언

제 5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도덕성 연구 2차년도인 본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에 개발된 감수성 검사도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형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검사 개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하위영역 및 딜레마를 설정하였다.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영역은 레스트의이론에 보다 충실하게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으로 설정하였다. 검사도구의 주요한 딜레마는 규범적 정의를 채택하고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생활형 딜레마인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는 일(과제제출), 놀이동산에 가다가 사고를 목격하는 일(놀이동산에 가다가), 친구들의 작품을 부수고 갈등하는 상황(부서진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각 딜레마별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에 적합한 문항들을 구성하여 예비조사에서는 놀이동산에 가다가 딜레마가 아닌 콘서트에 가다가의 딜레마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2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의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추가해야 할 문항들을 반영하는 등 문항조정을 실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였으며, 중학생 6,216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딜레마별로 2개 요인(상황지각, 결과지각)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도덕적 감수성의 상황 및 결과지각 요인으로 구성된 이론 모형이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에 근거하였을 때 자료를 매우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요인별 부하량도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통합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CFI=.92, TLI=.91, RMSEA=.039, SRMR=.038로 나타나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개발된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과의 상관은 .069 정도로 나왔으며,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인인 상황지각과 결과지각과의 상관은 .073과 .062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용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는 최종적으로 3개의 딜레마, '상황지각 15문항', '결과지각 12문항'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딜레마별로 상황지각에는 도덕적 이슈 지각 1문항, 도덕적 갈등 이유 2문항, 상황에 대한 감정 2문항이며, 결과지각에는 행위결과지각 2문항, 예견한 결과 행동의 도덕적 가치지각 1문항, 예견한 결과에 대한 타인의 감정 공감 1문항이다.

2. 정책제언

1) 도덕적 감수성 및 판단력 관련 프로그램 개발

도덕적 감수성은 우리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도덕적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도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도덕적인 상황으로 느끼게 하며, 도덕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움을 주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도덕적 감수성은 우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도덕적 감수성을 발판으로 삼아 직면한 상황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판단을 하며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구체적인 발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감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김혜진, 2010). 도덕적 감수성과 관련된 기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표 V-1 도덕적 감수성 관련 프로그램

연구 명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내용
청소년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 신나는 생활	금명자 외 (1996)	청소년	행복한 삶을 위해 불행한 삶, 사랑하면 사는 삶, 장애요소를 다루기를 배우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 꿈을 이루는 생활의 길	금명자, 구본용 (1997)	청소년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신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개인지능에 근거하여 좌절을 이겨내고 꿈을 꾸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원리들을 밝히고 개인지능과 목표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
주제중심 독서활동이 초등학교의 도덕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오증교 (2009)	청소년	동화를 이용한 독서활동이 레스트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
통합적 도덕성 함양을 위한 영상자료 활용 수업 연구	신자용 (2010)	청소년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도덕과 수업을 하였을 때 학생의 도덕적 인격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
딜레마 토의 수업을 통한 도덕 창의 인성의 함양: 정보윤리 감수성 판단력 신장을 중심으로	김현 (2010)	청소년	딜레마 토론을 활용한 토의식 수업이 정보 윤리 감수성과 판단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 김향인이 개발한 정보윤리 감수성 도구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토론 수업의 효과를 검증
신문을 활용한 중학생의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조주연 (1999)	청소년	가정 생활, 이웃생활, 학교 생활, 생태문제, 사회문제, 청소년 문화에 관련 된 신문기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도덕적 감수성과 판단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
딜레마 토론을 활용한 협동학습에서의 도덕적 민감성 연구	최지영 (2010)	예비 교사	딜레마 토론을 사용한 협동학습이 예비교사의 도덕적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 상황의 도덕적 측면인식, 타인에 대한 영향력 고려, 책임윤리의 발현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
예비교사를 위한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임연기·문미희 (2007)	예비 교사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실제 생활 딜레마를 활용한 수업이 인권 감수성이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
Ethical sensitivity	Narvaez (2001)	Youth (Middle school)	Ethical sensitivity: Reading and expression emotion Taking the perspective of others Caring by connecting to others working with interpersonal and group

		ol student)	<p>differences controlling social bias Generating interpretations and options identifying the consequences of action and options</p>
Environmental ethics	<p>Env Ethic http://www.env-ethics.com/en/</p>	Teacher, vocational training student	<p>The complexity of environment problems The problem of pollution and degradatio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ethics: The searching for decision 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wards a working definition - Moral dilemmas -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thics The challenge to environmental eth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ree areas of environmental ethics - Three areas of environmental reasoning Main approaches to environmental eth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anthropocentric view - The non-anthropocentric view - Ethical decision making The Need of political legal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y we need political-legal regulation - Principles for political and legal mea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 of environmental behaviour Actions on the casuistic level - Environmental science and environmental eth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role of Good laboratory pract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mplementaion of GLP - Pollution management - General summary and outlook </p>
Moral Development in School and Communities: The Kenan Institute for Ethic's Middle School Visions Character Education Program	<p>Dunning, Pickus, & Shanahan (2008) http://www.duke.edu/web/kenanethics/OccPapers/Mo</p>	Middle school	<p>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do the following:</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corporate interactive teaching strategies such as peer discussion, role-playing, and cooperative learning 2. Utilize direct teaching strategies to embed character initiatives in the academic curricula rather than in stand alone "character education" classes. 3. Include training in specific

	rnethics/OccPapers/MoralDevelopment_Dunning.pdf		<p>socio-emotional skills, such as anger management and peer mediation.</p> <p>4. Provide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raining for teachers and other staff involved in character initiatives.</p> <p>5. Articulate to the participants the nature of initiatives as being grounded i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morality, and ethical decision-making</p> <p>6. Have a modeling or mentoring component to provide adult or peer role models.</p> <p>7. Include family and/or community partners in the initiatives as partners in implementation or as consumers of the program.</p> <p>8. Operate on multiple levels of the social-ecological framework - classroom, school, family, and community.</p>
Character Education Program: : Moral Development, Self-Esteem and At-Risk Youth	Scott (2004)	At-Risk Youth (12-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rustworthiness 2. Respect 3. responsibility 4. fairness 5. caring 6. citizen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 Individual reflections activity - Small group work - Dilemma

위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도덕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특화되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도덕성이나 도덕적 인격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다. 도덕적 판단력은 도덕적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금명자 외, 1996; 금명자, 구본용, 1997)은 도덕적 상황 인식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개인 지능이나 대인관계 지능을 가르치는 것이 도덕성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교수 방법의 관점에서 도덕성 향상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주제 중심 독서, 신문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도덕적 감수성은 물론 도덕적 판단력에도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비록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실생활 딜레마를 토론하는 것이 도덕적 감수성에

효과적이라는 최지영(2010)과 임연기와 문미희(2007)의 연구 등을 주목할 만하다. 최지영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딜레마 토론이 도덕적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도덕적 딜레마 토론은 상황의 도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임연기와 문미희(2007)는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교사가 직면할 실생활 딜레마를 토론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인권 감수성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토론활동이 도덕적 감수성 신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교육활동에서 동화, 신문, 영화 및 실생활 문제 사례를 활용한 토론 수업의 효과성을 입증한 것이다. 도덕적 감수성의 향상에 도덕적 토론이 효과가 있지만 그러한 효과성이 만일 영화나 동화와 같은 감정 이입적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인지적 측면에 보다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덕과 교육 영역에서는 오랫동안 도덕적 판단력 함양을 위해 도덕과 수업모형을 개발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들은 지난 10년 동안 탐구공동체 활동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딜레마 토론 수업은 도덕적 판단력의 핵심인 도덕적 추론 능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효과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실생활 가치갈등 사례나 가상적 딜레마를 활용한 딜레마 토론 수업은 물론 가치 갈등 사례를 영상물로 활용하거나 대중음악이나 역할 놀이, 신문을 활용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개발하려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도덕적 토론을 보다 구조화하여 도덕적 수업안이나 토론 방법들을 구체화하여 도덕적 판단력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박진환과 이승주(2008)는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을 도덕과 교육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적용방안은 물론 탐구공동체 활동을 영상이나 신문 자료 활용, 대중음악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덕적 판단력의 향상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부패나 부정의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기여하며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표 V-2 도덕적 판단력 관련 프로그램

연구 명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내용
통합적 도덕성 함양을 위한 영상자료 활용 수업 연구	신자용 (2011)	청소년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도덕과 수업을 했을 때 학생의 도덕적 인격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였음.
도덕적 판단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도덕과의 역할 놀이 수업 방안 연구	고계숙 (2001)	청소년	역할놀이를 활용한 도덕 수업이 도덕적 판단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사의 역할과 역할놀이의 각 단계 절차를 상세화함
대중음악을 활용한 웹기반 가치 탐구 수업이 도덕판단력에 미치는 효과	이용수 (2002)	청소년	대중음악의 가사를 활용한 웹기반 가치탐구 수업이 도덕판단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함
딜레마 토의 수업을 통한 도덕 창의 인성의 함양: 정보윤리 감수성 판단력 신장을 중심으로	김현 (2010)	청소년	딜레마 토론을 활용한 토의식 수업이 정보 윤리 감수성과 판단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 김항인이 개발한 정보윤리 감수성 도구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토론 수업의 효과를 검증
신문을 활용한 중학생의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조주연 (1999)	청소년	가정 생활, 이웃생활, 학교 생활, 생태문제, 사회문제, 청소년 문화에 관련 된 신문기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도덕적 감수성과 판단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
도덕적 판단력의 향상을 위한 실생활의 가치갈등 사례를 활용한 도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허지선 (2010)	청소년	도덕수업에서 실제 문제사태를 활용한 가치갈등 수업모형을 적용한 도덕교육 프로그램이 문제아동의 도덕적 판단력 및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
도덕적 판단력 향상을 위한 철학적 탐구 공동체 적용 연구	박진환 이승주 (2008)	청소년	철학적 탐구공동체가 도덕적 판단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히고 토론 수업의 절차와 대화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도덕적 판단능력 신장연구	홍성현 (2003)	청소년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이 도덕적 토론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로서, 도덕판단력 신장에 기여
영상을 활용한 도덕과 탐구공동체 수업방안 연구	최고은 (2009)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향상을 위해 도덕적 탐구공동체 수업모형을 영상 활용 수업과 연계하려는 연구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를 위한	황경식 (1994)	청소년	탐구공동체를 활용한 수업과 정의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이 민주시민의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교육프로그램			주장하는 연구
진정한 비판적 사고 교육을 위한 도덕교육의 방향	윤영진 (2012)	청소년	합리성과 논리적 추론 능력 위주의 비판적 사고교육을 도덕적 배려를 포함하는 인격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연구
학교에서의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성민 (2002)	청소년	청소년들의 부패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 가치갈등 탐구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
토론식 수업이 학부모 교사 학생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승욱 (2011)	청소년	학교에서의 토론 수업이 학생과 교사, 가정에서의 토론활동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
Ethical sensitivity	Narvaez (2001)	Youth (Middle school student)	Developing general reasoning skills Developing ethical reasoning skills Understanding ethical problems using codes and identifying judgment criteria Reflecting on the process and outcome Planning to implement decisions Developing optimism

따라서 이러한 기존 도덕적 감수성과 판단력 관련 프로그램 및 선행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추출된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판단력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로 적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도덕적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영화, 도서,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학생들 간의 토론을 통해 도덕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방안을 소개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도덕적 토론이 도덕적 감수성보다는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위한 교육 방안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1) 도덕과 수업을 통한 도덕적 감수성 개발 방안

나바에즈는 레스트의 도덕적 행동의 4 구성요소 모델에 근거한 통합적 인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Narvaez & Endicott, 2009). 도덕적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네 가지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하여 전문가 수준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계적으로 배치하였다. 기술의 학습은 이론적 지식은 물론 방법적 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된 지식이나 태도, 기능 및 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덕적 감수성의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덕적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도덕적 감수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은 <표 V-3>과 같다. 6가지의 상위 기술과

하위 기술로서 3가지씩 조직하였다.

표 V-3 도덕적 감수성 관련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요소

기술 명	감정표현의 이해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	다양성에 반응하기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상황 해석하기	의사소통 잘하기
하위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 확인과 표현 ● 자신의 감정 조정하기 ● 노여움과 공격성 다스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 배려하기 ● 친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과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며 일하기 ● 다양성 인식하기 ● 다문화적으로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 진단하기 ● 편견 극복하기 ● 관용 가르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규정하기 ● 도덕적으로 인식하기 ●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고 듣기 ● 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기 ● 의사소통을 모니터하기

이러한 도덕적 감수성 기술을 도덕과 수업에서는 관련된 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황을 정확히 지각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절제 관련 단원에서 이러한 감정 인식 및 조절의 기술을 가르킬 수 있을 것이다.

(2) 특별활동(창의체험 활동)을 통한 도덕적 감수성 프로그램 개발 방안

도덕성 검사를 실시한 후 도덕성 4 구성요소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약점으로 확인된 요소들을 강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이 필요하다. 특별활동은 이를 위한 적절한 시간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통해 특별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도덕적 전문가 모델에 참고하여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도덕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윤리적 기술의 전문가 단계는 나바에즈의 통합적 인격교육 프로그램의 틀로서 전문가 수준의 기술학습의 유용한 틀이 되고 있다. 도덕적 감수성의 각 기술들을 4단계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한다.

지식의 수준	단계	교사활동
확인 지식	단계1 예시와 기회들에 몰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그림을 그리고 기본 패턴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기 <p>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례에 접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해당영역에 있는 패턴을 깨닫게 되면서 점차 영역의 기본요소들을 더 잘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다.</p>
정교화 지식	단계2 사실과 기술에 집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적이며 전형적인 사례에 주의집중하여 지식을 쌓기 <p>교사는 학생들이 지식을 정교하게 쌓을 수 있도록 영역의 기본적 개념들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p>
계획 지식	단계3 절차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를 정하고 문제해결 단계를 계획하고 기술을 연습하기 <p>교사는 영역 전반의 여러 기술들과 아이디어들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여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얼마나 잘 활용할 지에 대한 이해(계획지식)다. 기술은 연습과 탐구를 통해 발달된다.</p>
실행 지식	단계4 지식과 절차 통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을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p>개념과 지식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학생들은 여러 멘토를 찾거나 관련 정보를 얻는다. 점차적으로 기술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여러 상황에 적용한다. 학생은 복잡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배운다.</p>

(3) 도덕 요소(감수성, 판단력)를 가미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도덕교육은 도덕과 교육과정으로의 접근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야 하며,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인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청소년의 도덕적 감수성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덕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적인 요소를 청소년활동과 접목시키는 노력은 자칫 정적이고 무거운 주제라 생각되는 도덕을 동적인 활동과 결부시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동기부여 및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청소년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비판적사고력 프로그램(임영식, 조아미, 정경은, 정재천,

2010)이 좋은 예일 수 있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를 청소년활동과 결부시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도덕적 상황에 노출되고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훈련 등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현장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활동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2) 규준표 제시 및 도덕적 감수성 유형과 해석의 구체화 작업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규준지향적이고 한 개인이 얻는 점수는 이러한 규준표에 기초하여 점수수준이 해석되기 때문에 다양한 규준집단을 토대로 여러 형태의 규준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석우, 최태진,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측정결과 해석을 위한 규준표 작성이 필요하여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규준표가 작성되어졌다(종합보고서 참고). 또한 프로그램 유형별, 성별, 연령별, 회기별 규준도 제시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감수성의 유형과 도덕적 감수성 높낮이에 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구체적 해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감수성의 요인별 하위요소의 특징을 살려 요인별 강점 및 약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V-5>와 같다. 또한 도덕적 판단력은 6단계, 3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3수준에 해당하는 도덕성을 지닌 청소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강점, 약점을 구분하여 보면 <표 V-6>과 같다. <표 V-6>에서와 같이 약점은 1, 2, 3단계가 해당하고, 4, 5, 6단계는 강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이 좀 더 확장되어 기준이 되는 점수나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청소년 현장에서 더욱 활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준이나 유형화 논의는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유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단순한 ‘높다’, ‘낮다’ 차원의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도덕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을 수립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감수성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이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약점	요인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을 이해하고 지각할 수 있는 단서들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 ▪ 다른 사람의 정서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 ▪ 해당 상황이 도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p>상황 지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에 대해 민감하다. ▪ 다른 사람의 정서나 감정을 알아차린다. ▪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감을 잘 한다. ▪ 해당 상황이 도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쉽게 알아차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 ▪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견하지 못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 각각의 대안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예측된 결과들 중 특정 행동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p>결과 지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 ▪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유하여 공감할 수 있다. ▪ 각각의 대안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 예측된 결과들 중 특정 행동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표 V-6 도덕적 판단력의 요인별 강점과 약점

1, 2단계	3, 4단계	5, 6단계
약점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들이 만든 규칙에 잘 순응한다. ▪ 교환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여야 상호작용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호혜적인 시각에서 타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권리와 의지를 존중하고 다수의 복지차원에서 의무를 규정한다. ▪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을 잘 수용한다. ▪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개인들사이의 협동을 수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질서를 위한 법과 의무를 중요하게 여긴다. 	

3)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관련 연구의 지속화

본 연구는 도덕적 감수성 척도를 개발하고 기개발된 도덕적 판단력과 관련된 성 등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그리고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다.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도덕성 연구는 척도의 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완성되어 효과적인 측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투입되어질 때, 청소년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포함한 도덕성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척도의 정교화 및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행동으로의 연결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발달적 측면과 도덕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4) 청소년 도덕 맞춤형, 수준별 프로그램 적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덕적 감수성 척도 외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레스트의 도덕 4 구성요소에 맞게 다른 척도들(동기화, 품성화)도 올해 함께 개발하였다. 따라서 4개 도덕 영역에 대해 청소년들의 도덕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덕성 척도는 청소년 교육 및 활동 현장에서 일차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청소년들에게 각 영역의 척도를 측정하여 청소년 개개인별로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도덕 수준 파악은 향후 청소년들에게 각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할 수 있고, 각 영역별 요소에 따른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도덕수준을 파악하여 청소년 개인별, 집단별로 맞춤형, 수준형 프로그램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 노력과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덕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되었으며, 기본적인 것이기에 소홀히 다루어졌을 수도 있다.

학교현장과 청소년활동 현장에 여건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개입을 정착화 시키며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때, 청소년의 도덕성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덕 및 인성의 중요성만을 선언적으로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그 결과를 재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도덕성은 단기간 개입으로 즉각적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소년의 도덕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6) 도덕 프로그램 핵심 요소로서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덕적 감수성 척도는 척도의 하위요소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도덕적 감수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성장시키고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하위요인에 대한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는 척도의 하위요소들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받아

프로그램 개발 지침으로의 활용도 가능하여 프로그램 담당자 및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즉 본 척도의 하위 요인은 현장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요소 그리고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성을 유지시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척도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제작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계숙(2001). **도덕적 판단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도덕과의 역할놀이 수업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금명자, 구본용 (1997). **청소년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 꿈을 이루는 생활의 길**. **청소년 상담연구** 52. 청소년대화의광장.
- 금명자, 김광수, 전명희 (1996). **청소년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 연구: 신나는 생활의 길**. **청소년 상담연구** 28.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석우, 최태진 (2007).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용주(2010). **도덕성 발달과 신앙 발달과의 상관관계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익중, 성낙진, 정기훈 (2005). DIT 검사로 평가한 의료윤리 교육의 효과: D대학 의과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8(2), 95-104.
- 김지영 (2004). **대학교육과 도덕판단력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인 (2000). 도덕판단력 측정에 대한 고찰: DIT와 MJT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연구**, 12, 227-242.
- 김향인 (2004). **정보윤리 감수성 발달 방안 연구: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보윤리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19, 1-24.
- 김현 (2010). **딜레마 토의 수업을 통한 도덕과 창의·인성의 함양: 정보윤리 감수성**. **2010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 김혜진 (2010). **도덕적 민감성의 역할과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미 (2002). 간호학생의 도덕판단과 윤리적 가치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17-28.
- 문미애 (2009). 간호학생의 도덕 판단력에 관한 윤리교육의 효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12(2), 177-188.
- 문미희 (2004). **사범대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미희 (2006). 학교급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경향 분석: N2, 도덕적 도식 및 도식발달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0(3), 703-724.
- 문미희 (2007). 중고등학생의 도덕판단력과 인권태도와의 관계에서 공고화 발달 국면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21(2), 437-547.
- 문용린 (1986). **도덕 판단력의 측정과 DIT**.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문용린 (1988). **도덕과 교육론**. 서울: 갑을출판사.
- 문용린 (1994).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진단을 위한 연구: 도덕판단력 진단검사 (DIT)의 표준화 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보고서. 미간행 연구물.
- 문용린 (2002).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제비교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
- 문용린 외(2002).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문용린 (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원현주 (2008). 한국인의 도덕판단력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22(1), 281-299.
- 문용린, 문미희(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발달 연구개관. **청소년학연구**, 1(1), 43-57.
- 박균열, 홍성훈, 서규선, 한혜민(2011), **청소년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 I:도덕적 감수성**, (연구보고 11-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진환, 이승주(2008). 도덕 판단력 향상을 위한 철학적 탐구 공동체 적용 연구. **중등교육연구**, 20, 7-28.
- 박찬주 (1989). **한국인의 도덕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DIT적용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자용 (2011). **통합적 도덕성 함양을 위한 영상자료 활용 수업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증교 (2009). **주제중심 독서활동이 초등학생의 도덕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영진(2012). 진정한 비판적 사고 교육을 위한 도덕 교육의 방향. **윤리철학교육**, 17, 41-61.
- 이돈희(1994). 21세기의 사회와 한국의 교육 2. **교육연구**, 295, 14-17.
- 이명숙 (2011). 청소년의 도덕적 민감성 측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1-20.
- 이미애 (2008). 간호학생의 윤리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DIT를 사용하여. **간호행정학회지**, 13(1), 26-34.
- 이미애 (2009). 간호학생의 도덕 판단력에 관한 윤리교육의 효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2), 177-188.
- 이미애, 안성희, 강윤숙 (2006).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의 도덕성 발달수준 평가.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9(2), 157-168.
- 이병희 (2004). **한국판 초등용 DIT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수(2002). 대중음악을 활용한 웹기반 가치탐구수업이 도덕판단력에 미치는 효과. **탐구공동체교육**, 2, 91-116.
- 이인재, 김남준, 김향인, 류숙희, 윤영돈 (2011). **청소년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 I:도덕적 판단력** (연구보고 11-R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원봉 (2010). **KDIT의 P-지수와 MJT의 C-지수 비교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실증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혜 (2005). **도덕민감성 척도 개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기, 문미희 (2007). 예비교사를 위한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한국교원교육연구**, 24(2), 119-141.
- 임영식, 조아미, 정경은, 정재천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희선(2006). **도덕판단력검사(DIT)의 초등학생 이해도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희선, 문용린 (2010). 도덕판단력검사(KDIT)의 초등학생 이해도 분석- 딜레마 이해와 수행절차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2), 347-370.
- 조성민(2002). 학교에서의 반부패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덕윤리교육연구**, 1, 1-40.

- 조주연(1999). **신문을 활용한 중학생의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숙, 김선희 (2001). 아동의 감정이입 수준 및 상황에 따른 도덕적 민감도 발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4, 201-220.
- 최고은(2009). 영상을 활용한 도덕과 탐구공동체 수업방안 연구, **윤리철학교육**, 11, 79-106.
- 최지영 (2010). 딜레마 토론을 활용한 협동학습에서의 도덕적 민감성 연구. **열린교육연구**, 18(4), 171-194.
- 최창욱, 임영식, 이인재, 박균열, 박병기 (2011). **청소년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승욱(2011). 토론식 수업이 학부모·교사·학생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9(3), 16-33.
- 허지선(2010). **도덕판단력의 향상을 위한 실생활의 가치갈등 사례를 활용한 도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제행동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훈 (2000).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훈, 최창욱, 박균열 (2011). 청소년 도덕 감수성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26, 33-62.
- 홍성환(2003).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도덕적 판단능력 신장연구: '나의 친구 보임이'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경식(1994). 민주 시민 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철학윤리교육연구**, 10(22), 18-43.
- Asparouhov, T., & Muthen, B. (2009).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6(3), 397-438.
- Bebeau, M. J., & Brabeck, M. M. (1987). Integrating care and justice issues in professional moral education: A gender perspective. *Journal of Moral Education*, 16(3), 189-203.
- Bebeau, M. J., Born, D., & Ozar, D. (1993). The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 role orientation inventory.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60(2), 27–33.
- Bebeau, M. J. & Rest, J. (1982). *The dental ethical sensitivity test*. Center for the Study of Ethical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Bebeau, M. J., & Yamoor, C. (1985). Measuring dental students' ethical sensitivity.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9(4), 225–235.
- Brabeck, M. M., Rogers, L. A., Sirin, S., Henderson, J., Benvenuto, M., Weaver, M., & Ting, K. (2000). Increasing ethical sensitivity to racial and gender intolerance in schools: Development of the racial ethical sensitivity test. *Ethics Behavior*, 10(2), 119–137.
- Butterfield, K. D., Trevin, L. K., & Weaver, G. R. (2000). Moral awareness in business organizations: Influences of issue-related and social context factors. *Human Relations*, 53(7), 981–1018.
- Colby, A. Kohlberg, L., Speicher, B., Hewer, A., Gandee, D., Gibbs, J., & Power, C.(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s.1–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sham, P. (1981). Measuring moral judgment in nursing dilemmas. *Nursing Research*, 30(2), 104.
- Derryberry, P., & Thoma, S.J. (2005). Moral judgment, self understanding, and moral actions: The role of multiple constructs. *Merrill–Palmer Quarterly*, 51. 67–92.
- Dunning, R., Pickus, P., & Shanahan, S (2008). *Moral Development in School and Communities: The Kenan Institute for Ethic's Middle School Visions Character Education*. The Kenan Institute For Ethics at Duke University.
- Env Ethics (2001). *Environment Ethics Project*. Retrieved December, 13, 2012, from <http://www.env-ethics.com/en/>
- Erwin, W. J. (2000). Supervisor moral sensitivit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2), 115–127.
- Getz, I. (1985).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gger, S. (2011). Ethical sensitiv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8(1), 13–30.
- Jordan, J. (2007). Taking the first step toward a moral action: A review of moral sensitivity measurement across domai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8(3), 323–359.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Essay on moral development, Vol 2)*. San Francisco: Harper & Row.
- Kurtines, W. M., & Gewirtz, J. L. (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Moral development] (문용린 역). 서울: 학지사. (원저출판년도 1995)
- Lapsley, D. K. (2000) **도덕심리학** [Moral psychology] (문용린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저출판년도 1996).
- Lovett, B. J., & Jordan, A. H. (2010). Levels of moralisation: A new conception of moral sensitivi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9(2), 175–189.
- MacDonald, C. (2002). *Moral decision making: An analysis*. Retrieved December, 13, 2012, from <http://www.ethicsweb.ca/guide/moral-decision>.
- Maruyama, G., Fraser, S. C., & Miller, N. (1982). Personal responsibility and altruism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4), 658.
- McNeel, S. (1992). *Moral maturing in colleg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Morton, K. R., Worthley, J. S., Testerman, J. K., & Mahoney, M. L. (2006). Defining features of moral sensitivity and moral motivation: Pathways to moral reasoning in medical students 1. *Journal of Moral Education*, 35(3), 387–406.
- Myrsky, L., & Helkama, K. (2002). The role of value priorities and professional ethics training in moral sensitivi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1), 35–50.

- Narvaez, D. (1996). *Moral perception: a new construc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8–2 April.
- Narvaez, D. (2001). *Ethical Sensitivity: Activity Booklet 1*.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Narvaez D., & Bock, T.(2002). Moral Schemas and Tacit Judgement or How the Defining Issues Test is Supported by Cognitive Sci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297–314.
- Narvaez, D. & Endicott, L. (2009). *Ethical sensitivity: Nurturing character in the classroom, EthEx series book 1*. Alliance for Catholic Education Press.
- Narvaez, D., Getz, I., Rest, J. R., & Thoma, S. J. (1999). Individual moral judgment and cultural ideolog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478–488.
- Narvaez, D & Rest. J. (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on morally.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 London: Allyn and Bacon.
- Narvaez, D. & Rest, J. (2004).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4구성요소.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문용린 역). 서울: 학지사 (원저출판년도 1995).
- Piaget, J.(1932). *Moral judgement of children*. M., Gabain; Free Press.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25, 111–164.
- Rest J. R. (1983). Morality. In P. H. Mussen (Series Ed.), J. H. Flavell & E. M. Markman (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pp. 556–62). New York: Praeger.
-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Rest J. R.(1994). *College teaching and Student moral developme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Rest J. R. (1999). *A Neo-Kohlbergian Approach: The DIT and Schema Theory*.

-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 Rest, J. R. (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문용린, 유경재, 원현주, 이지혜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출판년도 1986)
- Rest, J. R. & Barnett,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Rest, J., Bebeau, M., & Volker, J. (1986). An Overview of the psychology of Morality, in Rest, J. R., & Barnett, R. (1986), *Moral Development*. New York: Praeger.
- Rest J. R., Narvaez, D., Bebeau, M., & Thoma, S. J. (1999a). A Neo-Kohlbergian Approach: The DIT and Schema Theor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4), 291-324.
- Rest J. R., Narvaez, D., Bebeau, M., Thoma, S. J. (1999b). *Postconventional moral thinking: A New-Kohlbergian approach*. Lawrence Erlbaum: London.
- Rest J. R., Narvaez, D., Thoma, S. J., Bebeau, M. (1999). DIT2: Devising and testing a revised instrument of moral judg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4), 644-659.
- Sadler, T. D. (2004). Moral sensitivity and its contribution to the resolution of socio-scientific issu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33(3), 339-358.
- Scott, D. A.(2004).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Moral Development, Self-Esteem and At-Risk Youth*,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Staub, E. (1987).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1-2. New York: Academic Press.
- Thoma, S., Narvaez, D., Endicott, L., & Derryberry, P. (2002). *Developmental phase indicators and mor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Thompson, R. A., & Hoffman, M. L. (1980). Empathy and the development of guilt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155.

- Tirri, K. & Nokelainen, P. (2011). *Measuring Multiple Intelligences and Moral Sensitivities in Education*. Rotterdam: Sense Publishers.
- Volker, J. M. (1984). *Counseling Experience, Moral Judgement, Awareness of Consequence, and Moral Sensitivity in Counseling Practice*. Doctoral dissertation.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부 록

1. 본조사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YMST-자기진단검사지

본
문

2012. 9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이 질문지는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검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답란에 표시(숫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응답이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솔직한 생각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문 담당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국가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은 무기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2012년 9월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A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전거를 산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사지 않는다

A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란에 번호를 기록해 주세요.)

번호	질문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⑤ 매우 중요 하다	답 란
			②	③	④	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함)	①	②	●	④	⑤	3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①	②	③	④	●	5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①	②	③	④	●	5	
4	자전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②	③	④	⑤	1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①	②	③	●	⑤	4	

A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3)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2)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5)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1)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	2	5	1

☞ 다음페이지부터 본조사가 시작됩니다.

A.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밖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A1. 만약 학생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 훔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훔치지 않는다

A2. 남편이 치료약을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① <-----> ⑤					답란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③	④	⑤ 매우 중요 하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①	②	③	④	⑤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①	②	③	④	⑤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①	②	③	④	⑤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①	②	③	④	⑤	

A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B.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옆집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B1. 만약 학생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 신고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신고하지 않는다

B2. 옆집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이름	질문	① 정 중 요 하 다	②	③	④	⑤ 매 중 요 하 다	답 란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①	②	③	④	⑤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법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①	②	③	④	⑤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①	②	③	④	⑤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①	②	③	④	⑤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옆집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①	②	③	④	⑤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①	②	③	④	⑤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①	②	③	④	⑤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①	②	③	④	⑤	

B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C.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C1. 만약 학생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학생은 이 환자의 애원에 대해 어떻게 하겠는가?

- ① 들어 준다 ② 잘 모르겠다 ③ 들어주지 않는다

C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구분	질문	① 전혀 아니다	②	③	④	⑤ 매우 중요하다	답 란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①	②	③	④	⑤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①	②	③	④	⑤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①	②	③	④	⑤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①	②	③	④	⑤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①	②	③	④	⑤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①	②	③	④	⑤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①	②	③	④	⑤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①	②	③	④	⑤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①	②	③	④	⑤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①	②	③	④	⑤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①	②	③	④	⑤	

C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D. 과제 검사

오늘은 지원이가 중요한 도덕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다. 이 과제는 환경윤리 문제에 대한 것인데, 지원이는 그동안 몸이 아파서 과제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도덕 시간은 5교시이다.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 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 과제는 나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내가 친구의 과제를 베낀 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번 과제는 점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원이가 과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마침 지원이의 짝은 과제를 다 해왔다. 게다가 짝은 지원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일인 양 자기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만약 내가 지원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D1. 다음을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는 번호를 선택하여 답란에 표시 해 주십시오.

번호	질 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답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지원이는 짝의 과제를 베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원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 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원이는 공정한 경쟁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원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을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몸이 아파서 과제를 하지 못한 지원이가 안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옳지 않은 방법으로 과제를 제출할지 고민하는 지원이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원이가 짝의 과제를 베끼지 않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짝의 과제를 베껴 제출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짝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 지원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짝의 과제를 베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다른 친구들이 기분나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일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짝의 과제를 베끼는 것은 부당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2. 만약 학생이 지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짝의 과제를 베끼겠다 ② 짝의 과제를 베끼지 않겠다 ③ 잘 모르겠다

E. 부서진 작품

윤서는 같은 반 친구가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친구는 축제 기간 동안 반 친구 전체가 공들여 만든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그 친구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리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윤서 자신이었다. 윤서는 자신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한다면 윤서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윤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E1. 다음을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는 번호를 선택하여 답란에 표시 해 주십시오.

번호	질 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답 란
1.	윤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윤서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윤서는 정직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윤서는 자기로 인해 오해받고 있는 친구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친구가 불쌍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아 친구를 비난받게 만든 윤서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윤서가 사실을 고백하면 친구를 비난하던 반 아이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윤서의 친구는 반 아이들에게 나쁜 아이로 낙인찍힐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윤서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오해받던 친구는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윤서가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윤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직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2. 만약 당신이 윤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내가 부셨다고 말하겠다 ② 내가 부셨다고 말하지 않겠다 ③ 잘 모르겠다

F. 놀이공원에 가다가

현민이는 오늘 아침부터 매우 들떠 있었다. 오늘은 손꼽아 기다리던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날이다. 친구들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둘러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할머니는 길을 물었고 그 장소는 현민이가 잘 아는 곳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되면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다. 현민이를 제외하고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늘따라 서둘러 나오느라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민이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만약 내가 현민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F1. 다음을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는 번호를 선택하여 답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답 란
1	현민이는 할머니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현민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친구뿐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현민이는 남을 돕는 일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현민이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초조해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할머니가 안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도와줄지 갈등하는 현민이를 생각하면 서글퍼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느라고 약속장소에 제시 시간에 가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은 이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지 않는다면 할머니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할머니를 돕지 않고 약속장소에 간 사실이 알려진다면 현민이의 행동은 비난받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현민이가 할머니를 돕는다면 할머니는 고마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현민이가 할머니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현민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2. 만약 학생이 현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할머니를 돕겠다 ② 놀이공원에 가겠다 ③ 잘 모르겠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DQ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DQ2. 학생은 학교 사회봉사활동 이외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DQ3. 학생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	----->						매우 도덕적이다	답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Q4. 학생은 다음 중 어느 집단이 가장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층 (20세 미만) ② 청년층 (20대-30대) ③ 장년층 (40대-50대) ④ 노년층 (60대 이상)

DQ5.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1 :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2 :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 10) 없음

DQ6.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두신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 다니심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답란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DQ7.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을 갖고 있나요?		답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DQ8. 학생의 학업 성적 (2012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답란
①	②	③	④	⑤	

DQ9. 학생의 가정 형편 (경제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답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Q10.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 ④/도 (서초) 시/군/⑧ (우면)읍/면/⑨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방배동이라면 (충청남) 시/⑤ (아산)④//구 (방배)읍/면/⑨으로 표기함.

♣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상관관계표

(1) 과제

	과제1	과제2	과제3	과제4	과제5	과제6	과제7	과제8	과제9	과제10
과제1	1	.167**	.218**	-.019	.191**	.118*	.111*	.021	.059	.053
과제2	.167**	1	.556**	.387**	.092	.337**	.367**	.413**	.392**	.417**
과제3	.218**	.556**	1	.356**	.119*	.319**	.380**	.387**	.376**	.318**
과제4	-.019	.387**	.356**	1	.069	.308**	.395**	.305**	.332**	.347**
과제5	.191**	.092	.119*	.069	1	.197**	.092	.096	.092	.130**
과제6	.118*	.337**	.319**	.308**	.197**	1	.459**	.260**	.255**	.328**
과제7	.111*	.367**	.380**	.395**	.092	.459**	1	.425**	.414**	.464**
과제8	.021	.413**	.387**	.305**	.096	.260**	.425**	1	.711**	.433**
과제9	.059	.392**	.376**	.332**	.092	.255**	.414**	.711**	1	.486**
과제10	.053	.417**	.318**	.347**	.130**	.328**	.464**	.433**	.486**	1

(2) 콘서트

	콘서트1	콘서트2	콘서트3	콘서트4	콘서트5	콘서트6	콘서트7	콘서트8	콘서트9	콘서트10
콘서트1	1	.302**	.175**	.340**	.269**	.026	.156**	.084	.263**	.165**
콘서트2	.302**	1	.477**	.456**	.437**	.464**	.505**	.263**	.471**	.394**
콘서트3	.175**	.477**	1	.251**	.242**	.380**	.335**	.270**	.282**	.286**
콘서트4	.340**	.456**	.251**	1	.528**	.250**	.449**	.185**	.552**	.354**
콘서트5	.269**	.437**	.242**	.528**	1	.354**	.579**	.283**	.545**	.424**
콘서트6	.026	.464**	.380**	.250**	.354**	1	.589**	.367**	.359**	.478**
콘서트7	.156**	.505**	.335**	.449**	.579**	.589**	1	.396**	.502**	.537**
콘서트8	.084	.263**	.270**	.185**	.283**	.367**	.396**	1	.276**	.399**
콘서트9	.263**	.471**	.282**	.552**	.545**	.359**	.502**	.276**	1	.416**
콘서트10	.165**	.394**	.286**	.354**	.424**	.478**	.537**	.399**	.416**	1

(3) 작품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	작품5	작품6	작품7	작품8	작품9	작품10
작품1	1	.332**	.304**	.370**	.392**	.216**	.311**	.373**	.189**	.271**
작품2	.332**	1	.637**	.550**	.434**	.270**	.151**	.317**	.260**	.405**
작품3	.304**	.637**	1	.479**	.387**	.285**	.206**	.295**	.256**	.442**
작품4	.370**	.550**	.479**	1	.477**	.330**	.330**	.318**	.361**	.437**
작품5	.392**	.434**	.387**	.477**	1	.305**	.243**	.463**	.243**	.383**
작품6	.216**	.270**	.285**	.330**	.305**	1	.283**	.283**	.412**	.265**
작품7	.311**	.151**	.206**	.330**	.243**	.283**	1	.336**	.285**	.270**
작품8	.373**	.317**	.295**	.318**	.463**	.283**	.336**	1	.252**	.395**
작품9	.189**	.260**	.256**	.361**	.243**	.412**	.285**	.252**	1	.305**
작품10	.271**	.405**	.442**	.437**	.383**	.265**	.270**	.395**	.305**	1

(4) 각 하위 영역간 상관 (상황감수성*결과감수성: .741)

	과제 감수 상황	과제 감수 결과	콘서트 감수 상황	콘서트 감수 결과	작품 감수 상황	작품 감수 결과	과제 감수성	콘서트 감수성	작품 감수성
과제 감수성 상황	1	.562**	.350**	.376**	.443**	.442**	.857**	.404**	.492**
과제 감수성 결과	.562**	1	.305**	.375**	.373**	.471**	.908**	.379**	.471**
콘서트 감수성 상황	.350**	.305**	1	.618**	.489**	.429**	.368**	.894**	.510**
콘서트 감수성 결과	.376**	.375**	.618**	1	.479**	.517**	.424**	.905**	.555**
작품 감수 상황	.443**	.373**	.489**	.479**	1	.616**	.456**	.538**	.893**
작품 감수 결과	.442**	.471**	.429**	.517**	.616**	1	.518**	.527**	.905**
과제 감수성	.857**	.908**	.368**	.424**	.456**	.518**	1	.441**	.543**
콘서트 감수성	.404**	.379**	.894**	.905**	.538**	.527**	.441**	1	.592**
작품 감수성	.492**	.471**	.510**	.555**	.893**	.905**	.543**	.592**	1

구분

(5) 수정모형의 상관관계 및 신뢰도

구분	상관관계 및 신뢰도
상관*결과 상관관계	.569
전체신뢰도	.834 (상황신뢰도.608, 결과신뢰도.804)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oral Sensitivity Test for Adolescents I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lement the problems in standardizing the testing tool found out through the first preliminary research in 2011, and as a result, to determine the final testing tool of the adolescents moral sensitivity as a Korean type, equipped with credibility and validity.

The construct of moral sensitivity test consists of circumstance perception and consequence perception with 3 stories, including 36 items of 7 likert type. The subjects were 6,210 adolescents. Finally, 27 questions in total with 3 dilemmas were determined, including 5 critical facts perception questions (one for the moral issue perception, two for the reason of moral conflicts, and the remain for the feeling about the critical facts) and 4 consequence perception questions (one for the behavioral result perception, one for the moral value perception of expected behavioral result, and the remain for the emotional sympathy with the other person from the expected result) according to dilemmas so that 9 questions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e definition and the limit of the study, and commented the proposal for the following studies.

Key Words : Moral Sensitivity test, critical facts perception, consequence perception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익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보고 12-R12-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인 쇄 2012년 12월 24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584-6 94330
978-89-7816-578-5 (세트)